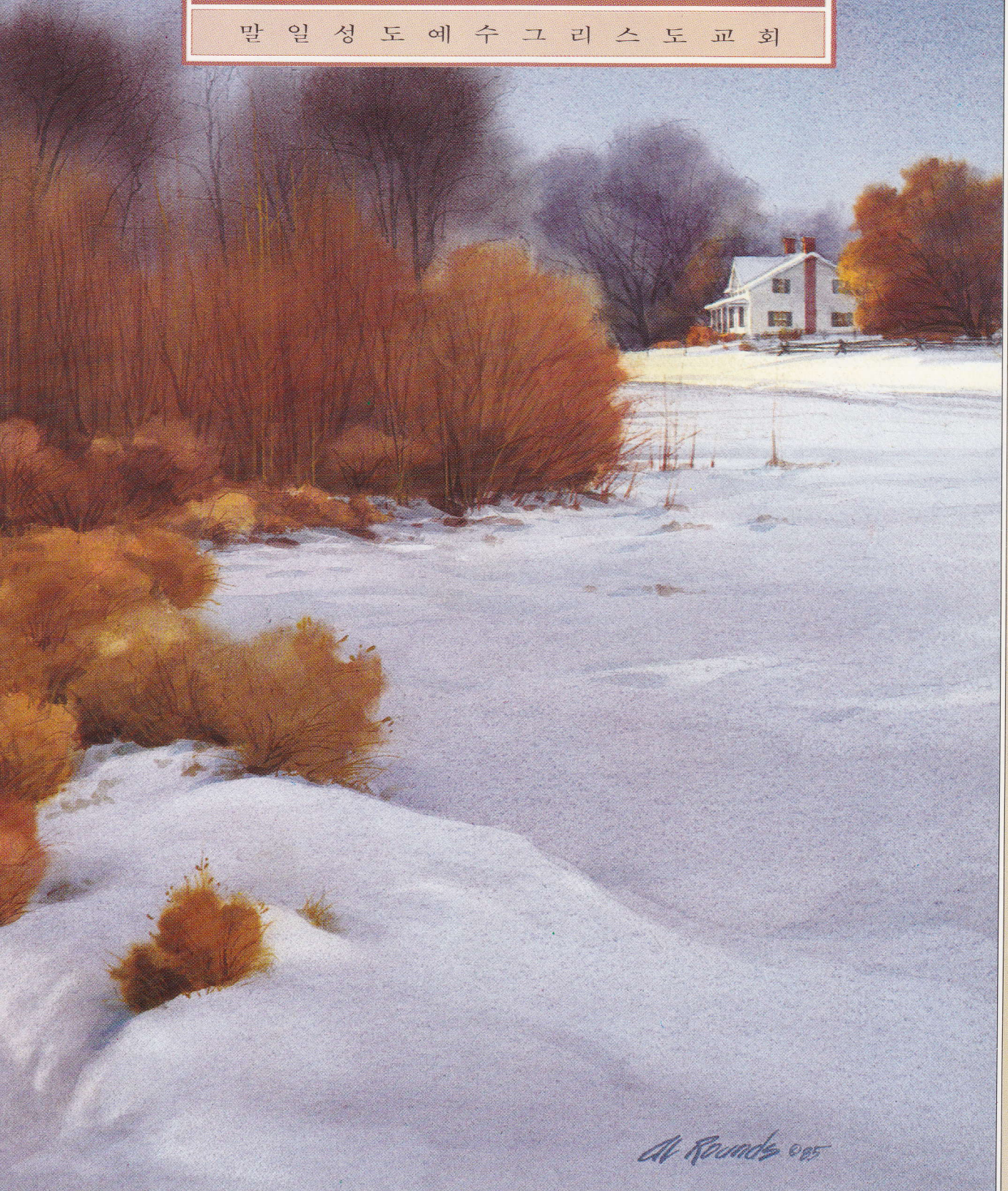


# 성도의 빛

10-11  
1986

말 일 성 도 예 수 그 리 스 도 교 회



*A. Reynolds 025*



# 성도의 빛

1986년 10-11월호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빛을 읽읍시다."

International Magazine © 1986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예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웨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고문:**

조셉 비 워스런,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임스 엠 패러모어, 휴 더블류 피녹크

통 권: 제247호, 제22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1986년 10월 1일(격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김 영 철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07KO

PRINTED IN KOREA 10-11/86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16



48

## 차 례

예언자의 말씀 하나님의 신권에 관하여	윌포드 우드럽	1
대관장단 메시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2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제1보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7
주의 심부름꾼 토마스 에스 몬슨	제프리 알 홀랜드	15
로비를 이해함	레오나 하아그	22
질 의 응답	제임스 에이 커버	24
새로운 찬송가—하나님의 아들		27
집을 향하여	하인즈 라데	28
새처럼 날아	테리 제이 모이어	32
진수 중의 진수	조운 시 한센	36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리차드 더블류 클롬프	39
심심풀이—종이 인형	마리안 도텔	42
바람 속의 음악	데안 패커 켈리	43
여덟살짜리 왕, 요시아		46
엘렌 푸셀 언생크	샤론 비겔로우	48
교회 및 지역 소식		50



예언자의 말씀

## 하나님의 신권에 관하여

윌포드 우드럽

**성** 신권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인간과 교통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대화하기 위하여 지상을 방문한 하늘에서 온 사자들은 육신으로 있을 때 신권을 소유하고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상으로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구속하시는 일까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일은 무엇이든 다 영원한 신권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신권 조직은 모두 다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집사는 그가 지니고 있는 신권을 통하여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게 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권에 의하여 인간은 의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은 이 목적을 위하여 계시되고 우리의 머리위에 인봉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신권이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생명과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상의 어떤 사람도 성역의 사업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하늘 왕국을 건설하는 것과 시온을 구속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장막 저편에도 똑같은 신권이 존재합니다. 충실한 사람은 누구나 저편에서 자신의 정원회에 속합니다. 그에게서 신권이 거두어지지 않으며 거기에는 그가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이 지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은 이곳에서 산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곧 복음의 음성을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조상을 영의 세상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받고 그들을 구속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왕국을 짓는 일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신권을 사용하면... 하늘이 물러나며 신권의 권세가 물러나며 그 사람은 빛이 아니라 암흑 속에서 견도록 버림받으며 이것은 이 세대나 어떤 세대에서나 모든 사람의 배도의 열쇠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에서 발췌함, 지 호머 더럼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제 1 판, 1946 년)]



## 대관장단 메시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그리스도 없이는 참만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밝혀졌을 때 기뻐 소리쳤습니다. (욥 38 : 7 참조)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형님이며 우리 아버지의 영의 자녀 가운데서 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그분은 예임된 우리의 구세주로서 “창세 이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양이 되셨습니다. (모세 7 : 47)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인 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 : 16)

예수님은 지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이름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세상에 확신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경전이 한권 있습니다. 물론경입니다. 이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성약이며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입니다. (물론경 소개 편)

물론경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구원을 전할 이름이나 길이나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모 3 : 17)

인간에 관한 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 위에 쌓아야 합니다. (히 5 : 12)

첫째 되는 계명은 그와 그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 22 : 37-38)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늘과 땅의 아버지”입니다. (모 3 : 8)

물론경에서 야곱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거늘, 어찌 주께서

좋아하시며 원하시는 대로 땅이나, 손수 땅 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명하실 수 없으랴?” (야 4 : 9)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의 피조물을 명령하십니다.

아담 시대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이 육신의 메시야의 신성한 성역에 대하여 증거해 왔습니다. 모세는 메시야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모 13 : 33-35)

물론경에서 야곱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대로... 그리스도의 강림 수 백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 기다렸으며” (야 4 : 4)

또 이 경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체로 제실 때 야벳 형제에게 나타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 (이더 3 : 16)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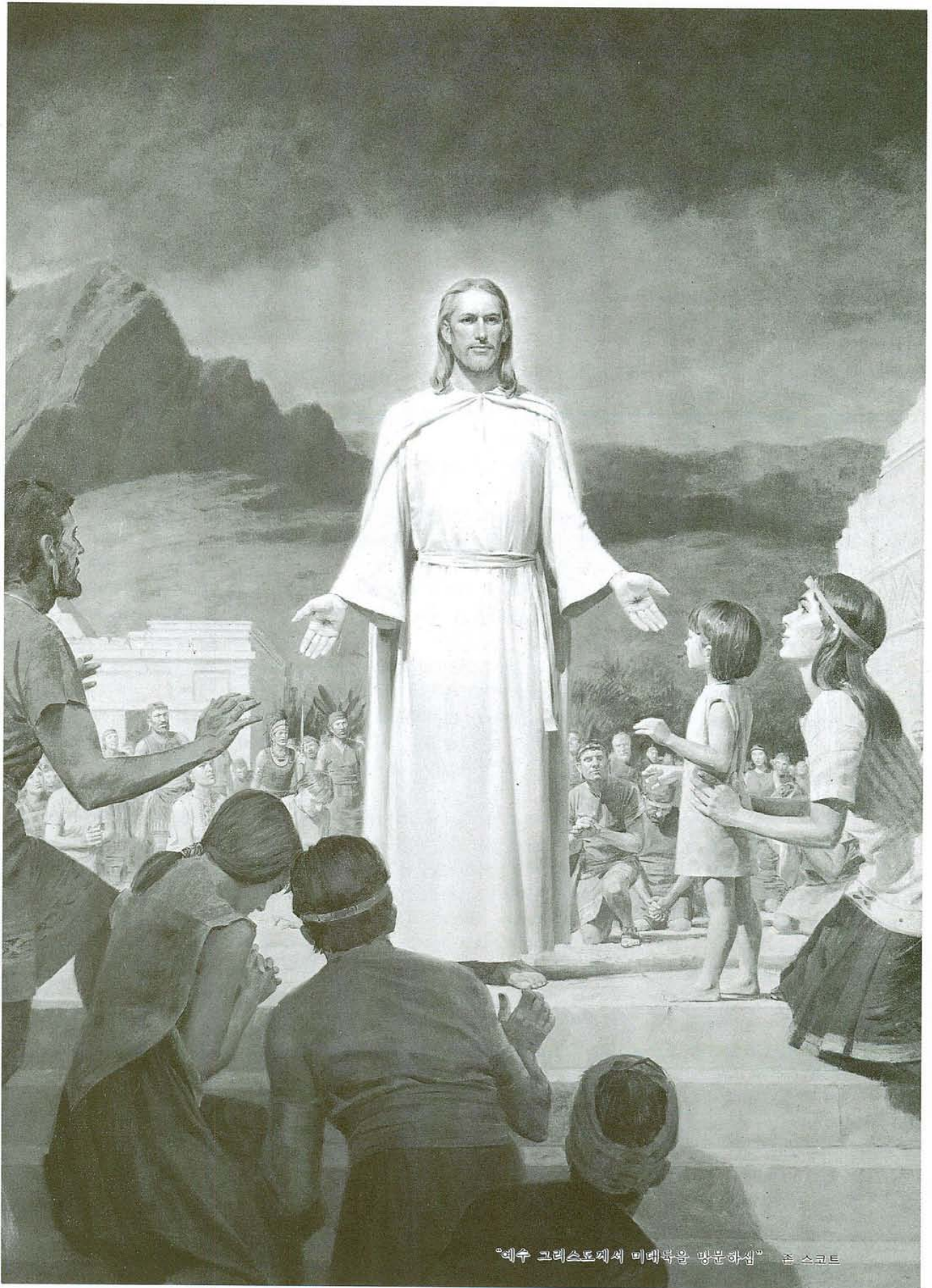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독생자이며 그의 필멸의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하여 태어나신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이나 후에도 동정녀라고 불리었습니다. (니일 11 : 20 참조)

그리하여 전세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율법을 주신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된 메시야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베냐민 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그의 성역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러 멀지 아니하여, 과거나 현재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권세로서 인간들 가운데 내리시어 흠으로 지어진 장막에 거하시며, 인간들에게 나아가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례복을 방문하심” 존 스코트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눈 먼 자로 빛을 보게 하시며 귀머저리를 듣게 하시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등 권능의 기적을 행하시며,

“악마를 쫓아내시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악령을 몰아 내시리니,

“보라 그는 시험을 받으며 육신의 고통과 주림과 갈증을 겪으며 이러함으로 기력이 진하시리니 죽음은 아닐망정 이토록 인간이 감당치 못할 온갖 고뇌를 겪으시어, 보라 주의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큰 고뇌로 하여 온 몸의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 나오리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 태초로부터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늘과 땅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이르리니”(모사이사서 3:5-8) 주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께의 뜻을 행함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니삼 27:13-14) 이라 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갈보리에 있는 갯세마베에서 주는 그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대속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역사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업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 모두를 육체적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시며, 복음의 의식과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시는 구속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성경에 훌륭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물론경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2,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차례로 한 사람씩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모두 만져 보고 나서”,

저 들이 한 소리로 높이 부르짖어 이르기를, “호산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 하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를 경배하였느니라.”(니삼 11:10, 14:17)

오늘날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회복의 첫번째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로부터 현재까지 주님께서 자신과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성 76:22-23)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옛날의 현인들과 똑같이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아나서서 그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를 찾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한 예수께 이를 구하여”(이더 12:41) 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방도를 즉 경전과 특히 물론경을 주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의 신앙 강좌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여섯 가지 열거했습니다. 물론경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속성을 모두 갖고 계시다는 끊임없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호하시는 분입니다. 베냐민 왕은 “그가 만물을 지으셨음…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모 4:9)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뛰어나신 성품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이 뚜렷하십니다. 엘마는 그리스도께서 “자비와 공의와 진실로 충만하시며,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가득하시”라고 증거했습니다.(엘 9:26)

셋째, 하나님께서는 변하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모든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모로 8:18) 계시하였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야렛 형제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당신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심이니이다.”(이더 3:12)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평치 않은 하나님이 아니시요”(모로 8:18)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성품에 대하여 니파이는 주님께서 “세상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행치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심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니이 26:24)

물론경은 인간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회원 친구나 모두 모로나이가 제안한 거룩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로 10 : 3-5 참조)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그 지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성경 기사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물문경 기사를 읽고 비회원 친구들과 함께 나누시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물문경을,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신의 물문경을 그들에게 한 권 주거나 빌려 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물문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니이 25 : 28)

우리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니이 4 : 34 참조)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모로 10 : 32) 우리는 의에 굽주리고 목말라 하며 (니삼 12 : 6)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니삼 12 : 19)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경전과 그분의 기름 부음받은 지와 그분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 (니이 31 : 20) 처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살아 계신 아들의 본을 따라” (니이 31 : 16) “하나님과 같은 자” (니삼 27 : 27) 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모로나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몰 8 : 22)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로서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성도의 빛/1986년 10-11월호

모든 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요셉 스미스가 그의 예언자이며 물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되며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벤슨 대장관이 주님의 예언자로 새로 부름받고 처음으로 전하신 중요한 말씀으로서 1985년 12월 1일 솔트레이크 태버넌클에서 열린 예배 모임에서 전한 메시지로부터 벤슨 대장관이 발췌한 내용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은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아버지의 영의 자녀 가운데 장자이며 우리의 형님인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구세주로 예임되었습니다.
2.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예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였으며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 성경과 물문경은 모두 주님의 탄생과 부활과 그의 대속의 희생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4.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도구로 하여 회복된 물문경은 말일에 인간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였습니다.
5. 회원들은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직접 나타내신 것에 대한 물문경의 기사를 비회원 친구들에게 전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우리 생활에서 구세주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2. 이 기사 내용 중에서 가족과 함께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이 토론은 방문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까? 감독이나 정원회 지도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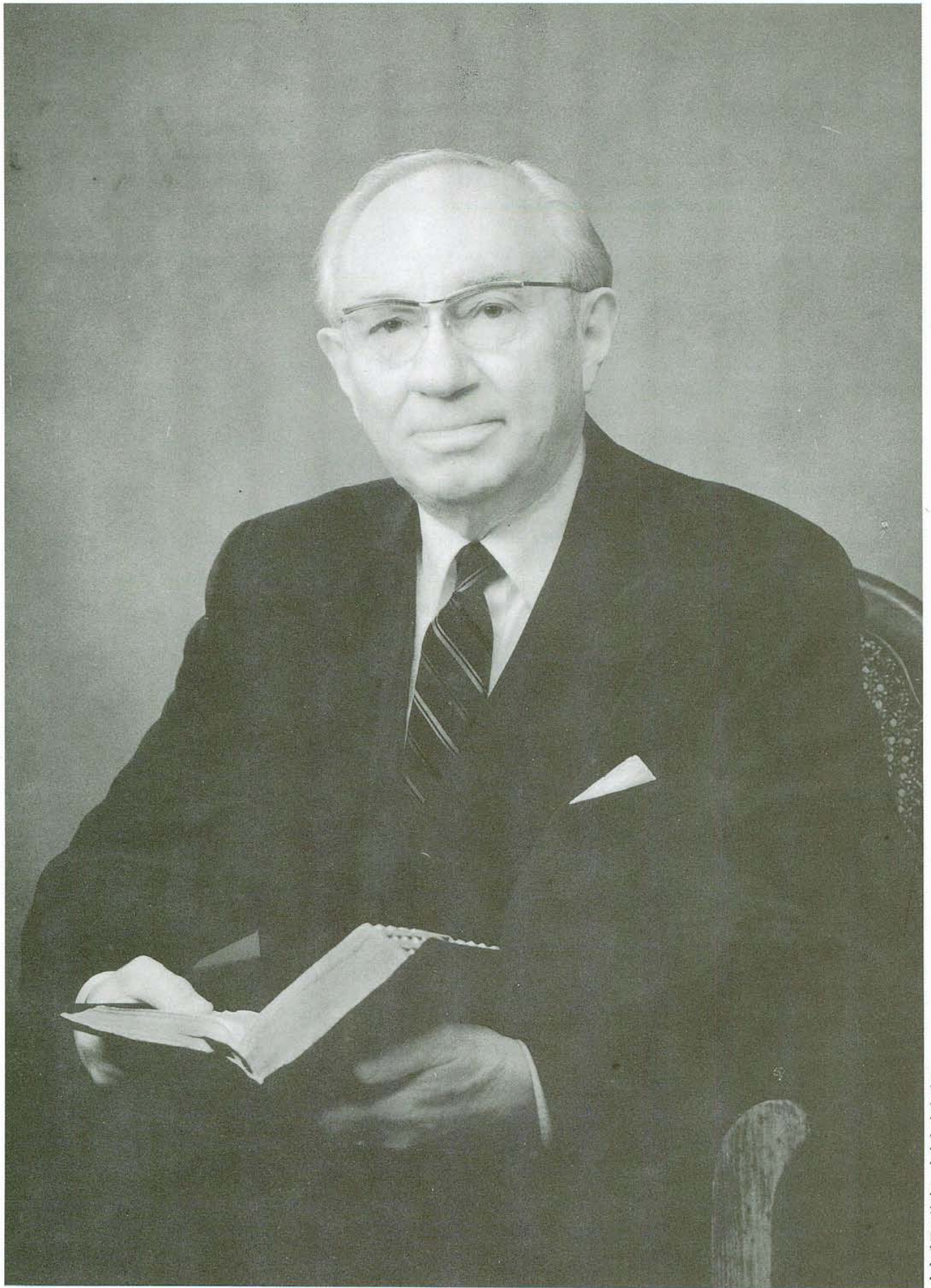


사진 제공 : 부사스 사진의 사진 제공



#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제1보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총** 관리 역원이 되어 처음으로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의 연단에서 말씀하실 때 고든 비 힝클리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이 길을 나 혼자 걸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 여기에 계시는 훌륭한 선한 사람들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도와 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1958년 4월 대회 보고)

고든 비 힝클리의 전기를 이야기하며 먼저 그에게 초점을 맞추면 방향이 잘못될 것이다. 우리는 그가 품고 있는 뜻을 받들어 부드럽고 자상하며 인내심 많고 오래 참는 성품의 그의 아내 마조리 케이 힝클리의 영향력을 먼저 말해야 할 것이다. 힝클리 형제를 현재 부름에까지 인도한 데는 다른 어떤 것 못지 않게 그녀의 영향이 컸다.

그녀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녀의 조모 시대인 개척자들의 고난의 때를 거슬러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친할머니인 메리 고벨이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부터 유타주로 올 때만 십삼세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개척자 손수레 부대를 따라나섰던 마차를 몰았다.

그 무서운 여행에서 메리의 어머니, 언니, 오빠가 다 죽었다. 그녀의 발은 얼어서 나중에 발가락을 여럿 잘라냈다. 어린 메리는 어머니의 시체와 함께 마차를 타고 계곡으로 들어왔다.

힝클리 자매의 외할머니인 마르다 엘리자베스 에반즈는 스테이크 부장의 충실한 아들인 조지

팩스맨과 결혼했다. 그는 목수 일을 할 줄 알았으며 그들은 유타주 맨타이로 이사했다. 그는 거기에서 성전 짓는 일에 종사했다. 그들은 뗏장으로 지붕을 이은 집에서 살았으며 신성한 복음의 성약 안에서 인봉된 행복한 부부였다.

조지 팩스맨은 둘째 아기(힝클리 자매의 어머니)가 태어나기 이개월 전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성전의 거대한 동쪽 문을 세우고 있었다. 아마 그 문 중에서 하나가 미끄러진 것 같았으며 그는 그것을 제 위치에 유지시키기 위하여 무리를 했던 것 같다.

그는 부상의 결과로 그 주에 굉장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 마르다는 생계를 위해서 바느질을 하면서 딸들을 부양했다. 그녀는 육십이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도 언제나 상냥하고 결코 신앙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손녀가 사도의 아내 여러 대관장의 보좌의 아내가 되게 되어 있었다.

힝클리 부대관장의 할아버지인 이라 나다니얼 힝클리는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도록 미시간주로부터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로 보내졌다. 그는 십대 소년으로서 일리노이주 나부까지 걸어갔으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났다.

그는 개척자들과 함께 서부로 여행했다. 남북 전쟁 기간에는 지원 입대하여 대륙 횡단 전진선을 지키는 북군에서 근무하였다. 나중에 브리감 영이 그를 유타주 코브크리크로 보냈고 그는 그곳에서 지금도 서 있는 요새를 지었다.

이라 힝클리는 서부로 여행하면서 한 계절 동안 뒤에 남아서 평원을

갈고 자신이 추수하지 않을 곡식을 심었다. 그 추수는 나중에 온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다. 힝클리 형제와 자매의 선조들은 그들을 뒤따를 사람들을 위하여 신앙의 밭을 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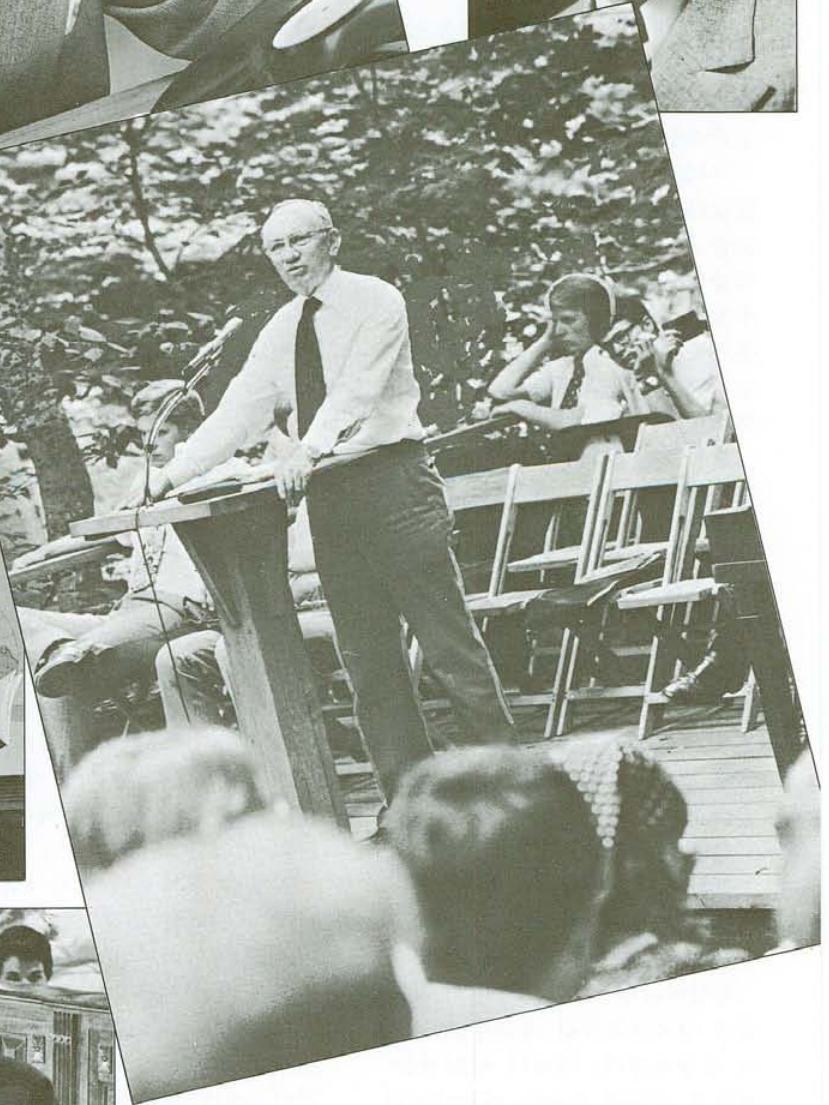
바로 그 영이 힝클리 형제에게 유산으로 넘겨졌다. 그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사유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세대에 올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을 맡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고 믿고있다. 합당한 성도들은 그 유산을 그렇게 지킬 것이며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가 회상하듯이 그 “신앙의 부산물”은 선한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모아졌다. 그것은 힝클리 형제와 자매에게서 모두 나타난다.

힝클리 형제의 부친인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는 코브 요새가 지어질 때 생후 일개월 되었다. 그 가족은 나중에 유타주 필모어로 이사했으며 거기에서 이라 엔 힝클리는 그 스테이크를 관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는 자기 부친의 발자취를 따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리버티 스테이크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 스테이크는 약 일만 오천명의 회원이 있는 당시로서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스테이크였다. 고든 비 힝클리는 시온의 스테이크를 관리하는 세번째 세대가 되게 되어 있었다.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는 세 가지 은사를 받았다. 민활한 정신, 굳건한 신앙 및 당시로는 드문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그는 결혼하여 여러 자녀를





좌측 상단: 고든 비 힝클리가 교회 라디오, 공보, 선교사 책자 위원회의 프로듀서 및 서기로 봉사할 때.  
 우측 상단: 1932년 봄 유타 대학 졸업 사진.  
 중앙 좌측: 1930년대 초에 구라파에서 선교 사업을 한 이래로 교회의 전세계 선교 사업을 인도하는 훌륭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중앙 우측: 회복에 대한 강한 간증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든 비 힝클리의 구모라 언덕 야외극에서의 근로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전한 연설.  
 하단 좌측: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1958년 4월 6일 연차 대회에서 심이사도의 가장 새로운 보조를 소개하고 있다.



가졌다. 그러다가 그의 아내가 죽어서 그가 어린 가족을 키우게 되었다. 당시에 그는 말일성도 실업 대학 학장이었으며 아름다운 아다 비너트가 영어와 속기를 가르치려 전임되어 왔다. 그녀는 동부에 있을 때 학교에서 새로운 방식의 속기를 배웠으며 그 지역에서는 그 방식을 최초로 가르치게 되었다. 나중에 사도가 된 리그랜드 리차즈가 그의 제자 중의 하나였다. 그 학교의 또 다른 교사는 젊은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로서 그는 후일에 여러 대관장을 보필한 보좌가 되었다.

브라이언트와 아다는 결혼했으며 그 가족이 늘어났다. “둘째” 가족 또는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하면 안된다. 핑클리 부대관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고든이 집사로 성임되어 스테이크 신권회에 참석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의 부친이 좀 마음내키지 않아 하는 아들들 그의 첫 신권회 모임에 데려갔으며 부친은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으로서 단상으로 갔다. 고든은 뒷줄에 남아 있었다.

형제만 모인 회중이 개회 찬송으로서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을 불렀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예수 기쁨부어 예언자 삼고

이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내 마음 속에서 강한 확신이 솟아났습니다.”라고 핑클리 부대관장이 나중에 말했다. 그의 가슴 속에 확인해 주는 영이 흘렀으며 간증의 영이 그 소년 집사에게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다짐해 주었다. 그는 그것을 알게되었다! 그는 그 사실을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안 것처럼 확실히 알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신앙의 산물”로 무장했다.

나중에 이 총명한 대학생의 신앙이 의심이라는 도전을 받았을 때(교회의 젊은 회원의 교육에

있어서 언제나 한 부분이 되는) 그 순간에 대한 추억이 그를 받쳐주었다. 60년 이상이 지난 오늘 날에도 그는 뺨으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경 밑으로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그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것은 교회 젊은이들에 대한 교훈일 것이다. 실족 핑클리 형제가 신앙이 약간 흔들려서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에 응함으로써 신앙을 다시 세웠다. 그는 언변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 부분에서 더 높은 학위를 얻기 위하여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다닐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뒤로 미루어야 했다.

그 기간은 경제 대공황의 시기였으므로 당시에 환율이 매우 불리했고 영국은 세계에서 선교 비용이 가장 비싼 선교부였다. 그는 프레스톤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곳은 초기 사도들이 사업을 개시한 곳이었다. 그는 십이사도이며 유럽 선교부장인 조셉 에프 메릴 장로의 보조로 봉사했다. 나중에 칠십인 제일 정권회 회장의 한 사람이 된 지 호머 더럼은 핑클리 장로의 동반자였다.

그는 선교부장으로부터 그 선교부의 상황에 관하여 대관장단에게 보고하라는 임무를 받고 귀환했다. 그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 및 그의 보좌들과 단 몇 분 동안만 시간을 보내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 회의는 훨씬 더 오래 연장되었다. 몇 달 후에 판명되었지만 대관장단에게 보고는 취직 면접 시험의 구실도 했다.

최신의 통신 수단의 힘을 선교 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십이사도의 새로운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고든은 교회 라디오, 공보, 선교 서적 위원회의 프로듀서인 동시에 서기로 봉사하게 되었다. 사실상 이것이 교회의 공보 사무의 시작이었다. 대학원에 가려는 그의 계획은 제쳐 두게 되었다. 그는 선교사를 마치고

귀환했을 때 시간제로 신학 연구원 중등부 교사로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신학원 교사로의 경력도 바꾸어야 했다. 그 위원회에는 십이사도 여섯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가 위원장으로 일했다.

이용할 수 있는 빈 사무실은 있었으나 당시에는 가구가 전혀 없었다. 융통성이 탁월했던 그는 부친이 사무실 집기를 취급하는, 선교사 동반자였던 사람을 찾아가 빼격거리는 타자를 하나 얻어 왔다. 한쪽 다리가 짧았으므로 그것은 나무 토막으로 고정시킬 수 있었다. 타자의 윗부분은 뒤틀려 있었고 금이 가 있었지만 그것은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그의 타자를 자기 집에서 갖고 와서 일을 시작했으며 그것이 그가 사도로 성임받고 교회 대관장의 일원으로 인도되는 여로의 시작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 다른 쓰라린 교훈도 배웠다. 1918년 고든이 8세가 되었을 때 불란서에서 동맹군과 함께 복무하고 있던 형인 스탠포드가 죽었다는 비보를 전하는 전보를 받은 것이다.

그 일이 어린 고든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성숙한 뒤의 고든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훗날 한국 동란과 월남전 기간에 그는 군대와 선교 사업과 많은 관련을 맺게 되었다. 선교 사업이 그의 첫사랑이었다.

그는 미군 관리들과 합의에 도달하여 그 비상 시기에 허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교 사업과 군복무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모든 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

그는 전 세계의 막사에 있는 군인을 방문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는 군인은 선교사라고 가르쳤으며 한국의 추운 방에서 또 월남의 전선에서 그 군복을 입은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신앙은 뻗어 나갔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그의





상단 좌측: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사무실에 있는 모습.  
 상단 우측: 1970년 4월에 부인인 마조리 페이 힝클리와 함께.  
 중앙: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교회 역사에 관한 힝클리 장로의 책을 보고 있다. 이 책은 선교사들의 표준 참고 서적이 되었다.  
 하단 좌측: 힝클리 장로는 여러 해 동안 극동에서의 교회 성장을 감리했다. 이 사진에서 그는 중공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다.



축복사인 토마스 이 켈리스터가 어린 고든에게 축복을 주었다. 축복사는 예언자이다.

“그대는 남자로 온전히 성장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힘세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리라...”

“성신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리라. 그대는 언제나 평화의 사자가 될 것이며 지상의 열국들이 그대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대가 전할 훌륭한 간증에 의하여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리라.”

그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당시에 4개의 큰 수도 즉 런던, 베를린, 파리, 워싱턴에서 진리에 대한 간증을 전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자신의 축복사 축복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 많은 성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1958년에 십이사도 보조로 또 1961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1961년에 그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1962년에는 헨리 디 모일 부대관장을 수행하여 미국, 영국, 구라파의 선교부를 모두 다 방문하였다. 모일 부대관장은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가 성역을 행한 국가의 이름을 드는 것보다는 그가 전파하지 않은 곳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더 쉬우리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과장이 아니다. 그는 남미에 있는 스몰 가이아나를 제외하고는 서반구의 모든 나라에서 구라파에서는 소련, 헝가리, 유고슬라비아를 포함하여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 또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하여 동양에서, 근동에서, 아프리카에서, 태평양 군도에서 간증을 전했다. 축복사는 정말로 예언자로서의 통찰력을 지닌 것이며 헝클리 형제는 자신이 받은 부름에

순종하여 자신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살고 있다.

어쩌면 겸손과 탁월함을 지니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게 될 사람은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느끼게 하는 어떤 특성이나 성품을 하나의 축복으로서 받는 것이 꼭 필요하지도 모른다.

그런 “은사” 자체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흔히 있다. 그것은 보통 내부 깊숙이 숨겨져 있으며 그러한 사람이 모세가 배운 교훈을 배웠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작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모세는 큰 시현을 보고 나서 그 교훈을 배우고 이렇게 말했다. “이로써 나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도다. 이 일은 전에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도다.”(모세서 1:10)

고든 비 헝클리의 성품에도 그런 면이 있다. 그가 소년 시절에 수줍음이 많았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는데 아마도 그런 느낌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이 “은사”가 없었다면 그는 사회에서 높은 위치를 점유한 까닭에 평범한 남자와 여자, 과부의 동전 한 푼과 가난한 사람들의 느낌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에 무감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그들에 대하여 생각한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해 왔다. “나는 교회 회원에 대하여 늘 민감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헝클리 형제는 여러 해 동안 비공식적으로는 “가슴 아픈 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위원회에서 봉사했다. 그곳에서는 심각한 범법을 한 사람을 심리했다. 그는 죄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히 그 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무죄한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동정과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교회 회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나 군림하는 식의

행정관이나 학술적인 특권층, 가족 생활에서의 부당한 행위, 세상적인 가식 등과 같은 것에 대하여 투덜거릴 때(사실 이 표현이 적절하다) 분명히 나타난다.

일부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것을 보고 그들의 생활은 명예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헝클리 형제의 선생이기도 하고 큰 영향을 미친 친지이기도 한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은 본부 신권 대회에서 일부 회원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부름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헝클리 부대관장을 아는 사람들은 부름의 직위가 그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사람을 사로잡는 그의 유모어 감각이 그를 구제해 준다.

재미있는 사실로서 그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내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세상의 거물들도 만날 자질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그가 대통령과 국가의 대사, 장군 및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함께 있었다.

소개하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헝클리 형제는 유모어가 넘치는 이야기를 하여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게 하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한결 편안해 한다. 그는 이렇게 할 때에도 품위를 지키며 매우 합당한 순간에 벌써 미국 대통령에게 물문경의 성구를 읽어 주고 있다.

이 세대에 고든 형제처럼 단 한 가지 목적 즉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죽은 자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먼 거리를 또 그렇게 많은 장소를 방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된 셈인지 헝클리 장로는 고통받는 성도들이 위안과 위로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는 통가에서 배에





상단 좌측 : 힝클리 부대관장 부부는 평생 동안 교회에서 같이 봉사했다.  
 상단 우측 : 힝클리 부대관장은 설혼 한 개 성전의 헌납과 재헌납에  
 참여하였다. 이 사진에서 그는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장로와 새로운  
 성전의 모형에 대하여 토의하고 있다.  
 하단 좌측 : 1981년부터 낮익은 장면이다. 힝클리 부대관장이 연차  
 대회의 모임을 사회하고 있다.  
 하단 우측 : 템플 스퀘어의 태버나클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잠깐  
 명상의 시간을 갖고 있다.



성도들이 가득 댔다가 익사한 비극이 생겼을 때 그곳에 있었다. 그는 바로 그 섬으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달려간 것이다. 페루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남미에 있었다. 이때에도 다시 그의 위로와 동정에 찬 음성이 들렸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는 그가 묵고 있는 호텔 옆에서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일 때 한국에 있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으로부터 죽은 자의 구속 사업을 빨리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부름을 받았다. 지금 성전의 엔터테인먼트 순서에는 우리를 인도해주는 영화가 바로 그 부름의 결과로 나왔다. 그리고 이런 교육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 스위스 성전의 헌납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는 설혼 한 개의 성전 헌납식 내지 재헌납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킴블 대관장과 롬니 부대관장이 모두 여행할 수 없게 되자 힝클리 형제가 열여덟 개 성전의 헌납을 감리하고 헌납 기도를 행하는 성스러운 임무를 지명받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가족의 신성한 성전 성약의 의미를 논할 때면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힝클리 형제에게는 다섯 자녀가 있다. 캐슬린 에이치 바안즈, 리차드 고든,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클라크 브라이언트, 제인 에이치 더들리가 있다. 그의 자녀와 결혼한 사람들은 그의 명성을 그들 자신의 위치에 대한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도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신성한 성역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축복으로 생각해 왔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 공로는 모두 그들의 어머니에게 돌려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가 현재 맡고 있는 책임에 대하여 조직적인 준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감동을 받게 된다.

그는 반 세기 이상의 기간에 교회 대관장 일곱 분 히버 제이 그랜트, 조지 앨버트 스미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 리, 스펜서 더블류 킴블 및 현재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과 더불어 여러 직책을 통하여 저들과 친교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었다.

그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소속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교사와 지도자로, 본부 주일학교 임원으로, 보조 조직 고문으로 봉사했다.

그는 여러 번 총관리 역원의 중요한 여러 위원회에서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으로 봉사했다. 이런 직책에는 본부 신권 위원회, 선교사 위원회, 성전 위원회, 인사 위원회, 예산 및 지출 위원회, 교육 위원회, 브리감 영 대학교 이사회(및 두 위원회의 이사회), 공보 위원회, 특수 업무 위원회, 정보 및 통신 체제 위원회가 포함된다.

이런 부름에는 물질적 및 영적인 일에 있어서의 교회의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고든 비 힝클리는 젊었을 때 대학에서 경제학의 여러 과정을 이수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나중에 유용하게 쓸 기본적인 것을 여러 가지 얻었다. 기업계의 지도자들이 그의 예리한 통찰력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를 이사회의 일원으로 초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는 중요한 재정 및 정책 결정에 있어서 기업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해왔다.

그런 봉사가 성역의 부름과 양립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교회에는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다. 총관리 역원은 온갖 분야로부터 다 부름받는다. 그러나 그들의 의무에는 교회의 신성한 자원인 십일조와

헌물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의미를 알게 된다.

교회의 필요한 업무는 전 세계에 뻗어 있다. 이런 업무는 예배당과 성전을 짓고 선교부 및 교회의 임무의 핵심이 되는 수많은 다른 일에 기금을 대기 위한 기금 운영과 관련이 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도록 직업적인 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십일조 처리에 관한 위원회인 대관장단, 십이사도 평의회, 관리 감독단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힝클리 형제가 얻은 소중한 경험은 그가 교회의 신성한 기금의 수탁인으로 봉사할 준비를 갖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이런 업무 및 세상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힝클리 형제는 인간사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공보 및 정치 업무에 대하여 예리한 지식을 쌓았다. 이것도 교회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 도덕적인 문제가 관련되고 교회의 이익이 위협당할 때 그는 여러 번 그 어려움을 처리하는 길을 모색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기도 했다.

그러나 힝클리 부대관장을 인도하는 것은 세상의 표준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잘 사용된 경전을 가까이 두고 있다. 만일 누군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사무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면 약간 시간이 지체된다고 느낄 것이다. 그가 무릎 꿇은 상태에서부터 일어서서 문으로 나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알게 되면 왜 주님께서 고든 비 힝클리를 사도로, 여러 예언자와 대관장의 보좌로 부르셨는지 알게 된다. \*





부사스 사진사 사진 제공



# 토마스 에스 몬슨 주의 심부름꾼

제프리 알 홀랜드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

**솔** 트레이크시티의 벨리부 스테이크 육-칠 와드의 새로운 감독인 만 이십삼세의 톰 몬슨은 스테이크 신권 역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하게 초조해 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 그 모임을 떠나서 그 도시의 길 위쪽에 있는 베테란즈 종합 병원에 가야 한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은 것이다. 그는 그날 밤 집을 떠나기 전에 와드의 좀 나이가 든 회원이 병이 들어 그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전화를 한 사람은 감독이 언제 잠시 시간을 내서 병원에 들러 축복해 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 바쁜 젊은 감독은 자신이 지금 막 스테이크 모임에 가는 길이지만 그 모임이 끝나면 즉시 그 병원에 들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속삭임은 더욱 강해졌다. “모임에서 나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거라.” 그러나 그때 스테이크 부장께서 직접 단상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가! 관리 역원이 말씀하는 도중에 일어서서 형제들이 모두 앉아 있는 사이를 지나 건물 출구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예외에 어긋날 것이다. 그는 고통스럽게 스테이크 부장의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폐회 기도를 하기도 전에 문을 향하여 달려나왔다.

그 젊은 감독은 병원 4층의 복도 끝까지 달려가서 그 지정된 병실 밖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간호원이 그를 세우고는 “몬슨 감독님이신가요?”라고 말했다.

“예”라고 초조하게 대답했다.

그 간호원은 이렇게 말했다. “안됐습니다. 환자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독님의 성함을 부르고 있었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은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절대로 두 번 다시 주님의 속삭임에 따라 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느낌이 오면 그것을 깨닫고 그 부름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게 되든지 “주의 심부름”을 가겠다고 했다.

교회 대관장단의 제 2보좌로 새로 부름받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의 생애에서 그런 속삭임이 반복된 것과 그가 그런 속삭임에 순종하겠다고 일찌기 약속했은 것을 절대적인 충성심을 갖고 지킨 것을 모르고는 그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그의 일생은 성신이 훌륭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써 온 또 지금도 쓰고 있는 신성한 원고같이 보인다. 그는 “나이가 아주 어리다.” 스물 두 살에 감독으로, 스물 일곱 살에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로 서른 한 살에 선교부장으로, 서른 여섯에 사도로(오십 삼년 만에 최연소), 오십 팔 세에 대관장단 보좌로(금세기에 최연소) 부름받았다. 그는 또 어릴 때부터 인쇄업을 하는 아버지의 곁에서 일한 덕에 체격이 크고 튼튼하고 쾌활하고 정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몬슨 부대관장은 겸손과 신앙에 있어서 어린 니파이와 아주 비슷했다. 그는 그동안 그렇게 성공적으로 성취한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는 길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는 서약을 굳건히 지켰다. 그뿐 아니라 그는 니파이가 행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 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가서 그렇게 행하였다. (니파이일서 4:6) 이런 사람들이 “시온을 세우”도록 부름받는 일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니 이는 “저들이 성신의 능력과 은사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니파이일서 13:37) 그런. 약속에 비추어 보면 프랭크 비 우드베리 형제가 1944년 3월 어느 날 심육세된 톰 몬슨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말할 때보다 더 분명한 예언의 영을 지녔던 축복사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대의 영감과 길잡이가 되도록 또 그대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대를 지도하도록 또 그대 마음을 과거의 것으로 데려가고 앞으로 있을 일을 그대에게 보여 주시도록 성신이 그대에게 부여되었느니라. ...

“그대는 진실로 그대의 동료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되리라... 그대는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특권을 갖게 되리라... 또 그대는 분별의 영을 지니게 되리라. ...

“그대가 부름받을 높고 거룩하신 부름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적절한 진로를 알도록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이 그대를 인도하고 지시하도록 간구할지어다. ...”

그 축복사가 평범하게 보이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주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우리는 그저 상상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아마 우드베리 형제는 그때에도 그런 부름이 얼마나 “높고 거룩할지” 알았을 것이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은 1927년 8월 21일 일요일 아침에 유타주





상단 좌측: 몬슨 부대관장이 "조용하고 깊고 강한 신앙의 여성"인 부인 프랜시스 존슨 몬슨과 함께 있는 모습.  
 하단 좌측: 감독이 "대부분의 소년이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종류의 소년"이라고 설명한 어린 소년 시절의 톰 몬슨.  
 상단 우측: 어린 토마스 몬슨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하단 우측: 십칠 세 된 톰 몬슨이 해군 예비 부대에 입대하고 일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2차 대전이 끝났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인 지 스펜서와 글레이디즈 콘디 몬슨은 각각 강인한 스웨덴-영국의 혈통과 스코틀랜드 혈통을 타고 났으며 겸손하고 근면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였다. 당시 그들에게는 마조리라는 딸이 있었으며 나중에는 로버트, 마릴린, 스코트, 바바라가 자녀로 더 태어났다.

친척을 포함하여 가족들은 어린 톰 몬슨의 생애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할아버지인 콘디는 도시 중심부 근처에 땅을 사 그곳에 자기 집을 짓고 콘디의 딸 네 사람과 그들의 남편에게 집을 한 채씩 마련해 주었다. 이 시기는 가까이 사는 콘디 숙모들 뿐 아니라 근처에 사는 콘디와 몬슨의 친척들도 계속해서 자리를 함께

하는 날이 가득 찬 즐거운 시대였다.

그의 가족은 소위 말하는 값비싼 것은 별로 갖지 못했지만(그는 자기 침실이 거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어린 톰은 부드러운 마음과 사랑이 많은 본성으로 인하여 자기보다 불우한 주변의 사람들을 곧 마음에 두게 되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은 토마스 몬슨으로 하여금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하여 유의하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 과정의 일부였던 것 같다. 그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바로 그 육-칠 와드의 감독이 되었을 때 약 85명의 과부를 포함하여 1,060명의 회원을 담당하게 되어 교회에서 가장 큰 복지 업무를 책임지게 되었다.

젊은 몬슨 감독은 매년 성탄 절기가 되면 자신의 개인 휴가에서 일주일씩 내서 그의 와드 내의 85명의 과부를 모두 다 찾아보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첫 몇 해 동안 그가 그들에게 선물로 한 마리씩 갖다 준 닭이 그가 자기 닭장에서 직접 키운 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몬슨 부대관장은 그 감독 직책에서 해임된 지 삼십년 이상이나 되었지만 매년 성탄절이 되면 그 과부들이 살아 있는 한 한 사람씩 다 찾아다니며 선물을 전하곤 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들은 몬슨 형제가 수많은 임무를 끝내고 마을로 돌아와서 그들의 장례식에서 말씀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 것 같았다. 아마 현재



교회 지도자 가운데 그만큼 장례식에서 말씀을 많이 한 사람 없을 것이다. 한번은 하루에 세 장례식에 참석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성역을 베풀면서 어딘가에서 만나고 사랑하던, 때로는 평범하고 그가 아니었으면 알려지지 않았을 영혼에 대하여 언제나 극히 친밀하고 개인적인 말씀을 전했다.

오랜 친구인 웬델 제이 애쉬튼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톰은 평민의 사람이며 불우한 사람의 투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농구 시합에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면 그 친구들은 부자거나 유명하거나 사업계의 지도자 등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소나무와 같습니다. 소나무는 꼭대기가 높고 하늘까지 뻗지만 그 가지는 넓고 땅까지 드리우며 거기에서 보호처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보호해 줍니다.

십오 년 동안이나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몬슨 장로의 옆에 앉았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몬슨 형제는 마을 주변의 수많은 양로원에서 원목으로 자원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언제나 그들을 방문하며 때로는 자유로운 시간이 없을 때에도 그들을 방문합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의도에서 몬슨 부대관장에게 그가 이 노인들을 방문하여 한 마디도 잘 대답하지 않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말씀하는 것은 쓸모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시간을 절약하시고 숨을 좀 돌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몬슨 장로님, 그들은 장로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확고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토마스 몬슨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이 나를 알거나 모르거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요.”) 데저렛 뉴스의 출판자이며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 온 더블류 제임스 모타이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난 이십 오년 동안 사업계, 교회, 개인 업무에서 몬슨 부대관장과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의 장점과 힘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겸손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능은 예리하지만 언제나 지혜로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권세는 건전한 판단력에 따라 갖고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봉사와 충성을 통하여 현재 사람들로 부터 받고 있는 사랑을 얻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몬슨 부대관장의 친구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서 톰 몬슨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톰의 친구가 되면 영원히 그의 친구입니다. 그의 그러한 기억력은 아무것도 잊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특히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몬슨 부대관장은 그런 충성심과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품을 인생의 매우 이른 초기에 개발시켰다. 그와 평생 동안 친구로 지내 왔고 전에 감독을 했으며 몬슨 형제와 함께 그와 평생 동안 친구로 지내 왔고 전에 감독을 했으며 몬슨 형제와 템플 뷰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보좌로 일한 적이 있는 존 알 버트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대부분의 소년들이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도 소속 정원회 보좌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이 활동을 하도록 자극을 주었습니다. 보통은 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권고해야 하지만 톰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치있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늘 그와 함께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일의 지도자직을 맡든지 잘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것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는 영적인 거인입니다.”

다른 수많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십칠 세 된 톰이 당시에 그와 함께 입대 한 마흔 한 명의 다른 신병들과는 달리 정규 해군(4년 복무하면 제대가 보장되어 있음) 대신에 해군 예비 부대(전쟁이 끝나면 그 후 6개월 더 복무함)를 선택하였을 때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속삭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절박한 기도의 결과로 내린 결정이었다.

그가 입대하고 불과 몇 주밖에 안되었을 때 구라과에서 전쟁이 끝났으며 몇 개월 후에 태평양에 평화가 왔다. 토마스 에스 몬슨 소위는 실제 복무를 시작한 지 일년도 안되어서 제대하여 유타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였으며 군에 입대하지 않은 급우들보다 반학기 밖에 뒤지지 않았다. 성령의 인도로 인하여 그는 전쟁이 끝난 후 필요없이 삼년을 더 복무하지 않게 되었다. 그 당시에도 그는 자신이 전혀 다른 전투와 훨씬 더 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베소서 6:11)로 무장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그는 “주의 심부름하는 자”였으며 그의 시간은 대단히 중요했다.

따뜻한 마음과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의 책에서 가장 멋있는 장 가운데 하나는 몬슨 부대관장이 프랜시스 존슨에게 구혼할 때부터 시작된다. 딸인 앤 몬슨 디브는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성공담의 또 다른 절반이며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절반입니다. 한번은 아버지께서 대회 말씀을 하시면서 ‘익명’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충실하게 봉사하고 그렇게 많이 주되 인정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어머니에게 해당되는 훌륭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 대하여 글도 쓰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없었으면 그가 현재까지 이룩하신 일을 이룩하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젊은 톰이 처음으로 존슨 가문을 방문했던 그날 저녁 이 결혼은 하늘이 맺어 준 결혼이 될 것이 분명했다. 프란츠 존슨 형제는 “몬슨! 몬슨이라! 그 이름은 스웨덴 이름이지?”라고 했다. 그날 그 젊은 구혼자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신숙하게 그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했다.

그러자 존슨 형제는 서랍장으로 가서 두 선교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한 장 가지고 나왔다. 그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몬슨과 친척이 되나?”

젊은 방문객은 “예, 그렇습니다. 저의 큰 아버지이신 엘리야스 몬슨이십니다.”라고 말했다.

존슨 형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외쳤다. “그가 바로 스웨덴 땅에서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우리 모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 톰과 프란시스의 로맨스는 그런 단단한 기반 위에서 꽃을 피웠으며 두 사람은 1948년 10월 7일 솔트레이크시티 성전에서 현재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했다.

몬슨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남편은 와드 서기로 봉사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청남 조직 책임자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 수많은 임무를 계속해서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갖 결혼한 신부가 어떻게 그런 일에 적응할 수 있었느냐고 묻지만 남편이 주님의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회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나를 축복해 주었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몬슨 부대관장은 사랑에 찬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삼십 칠 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나의

교회 책임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한번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삼십 칠년 동안 나는 수많은 밤낮을 밖에 나가 있었으며 그녀와 함께 청중 속에 앉을 수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내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면에서 지지하는 마음을 지닌 조용하고 깊고 강력한 신앙의 여인입니다.”

몬슨 형제는 아내가 곁에 있는 가운데 점점 커지는 교회 책임을 수행하면서 언젠가는 교회 대관장단의 보좌로서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준비를 계속하였다.

톰은 대단한 열의로 교육에 임하였으므로 (그는 유타 대학으로부터 저명 인사 동창회 상을 받았고 자신이 이사로서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로부터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48년에 유타 대학에서 우등으로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몬슨 형제의 대학교 학과장이었던 오 프레스턴 로빈슨 박사는 이렇게 회상한다.

“톰은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과목이든지 하기만 하면 ‘A’ 학점을 받았습니다. 나는 바로 그때부터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더 많이 듣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데저렛 뉴스에서 일하였습니다. 차차 그후로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나로서는 큰 특권이었습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친구로서 아무리 많은 말로도 그에 대하여 충분히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를 친아들처럼 사랑합니다.” 몬슨 부대관장의 뛰어난 결단력의 한 모습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몇 년 후에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잘 나타나 있다.

초기에 데저렛 뉴스에서 광고 판매와 경영 일을 하다가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캐나다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면서 그 일을 중단했다. 그 선교부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었으며 스테이크는 하나도 없었고 적절한 건물도 별로 없었다.

전에 선교사로 일했던 에프 웨인 챔벌레인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그 선교부에 극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부 복음 선교사보다 더 젊었으며 그 자신 선교사로 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그는 지도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선교부를 한번 굽히 둘러보았을 뿐인데 모든 선교사의 이름과 수많은 회원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모든 사람의 영성을 고양시켰습니다. 그는 선교부 전체에 완전히 새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부장의 지도하에 동부 캐나다에서 교회의 사업이 번창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와서 일년반 동안, 교회 본부의 여러 위원회에서 봉사한 다음 1963년 10월 4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몬슨 형제는 사도로서 봉사한 것 이외에 전문가로서 또한 국민으로서도 중요한 의무를 행하였다. 여기에는 미국 소년단 전국 이사회에서 봉사한 것과(이 일로 인하여 소년단의 유명한 실버 버팔로 상을 받았다.) 미합중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민간 부문 위원회에서 봉사한 것이 포함된다. 이 위원회는 시민들이 자기 지역 사회를 개선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사람들의 단체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친지인 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톰은 회원 사이에서나 비회원 사이에서나 지도자로서 힘들이지 않고 똑같은 역량을 발휘합니다. 행정가와 집행자로서의 그의 능력은 학술 훈련이나 직업상의 경험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으며 타고난 천부의 것입니다. 그는 어떤 문제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지니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로 고심하고 있을 때 그 문제의 중요한 세부 사항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지역 사회의 지도자이며 솔트레이크 트리본의 발행자이기도 한 천주교인 존 더블류 켈리번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톰 몬슨이 당신과 한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온화하고 진실하며 또 사람을 좋아하는 이 사람은 계명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톰 몬슨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친구가 됩니다. 그것은 그의 본성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톰 몬슨을 대관장단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우정을 통하여 이 지역 사회를 특별히 단합시켰습니다.”

몬슨 부대관장이 거의 이십년 동안이나 동구의 여러 나라에서 일하면서 그가 비회원 성도들과 일할 때 발휘한 외교적인 능력은 두드러져 보인다. 1982년 8월 그곳에서 첫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것을 도운 다음 1985년 6월 29일 동독의 프라이베르그에 성전이 헌납되면서 그의 개인적인 꿈이 실현되었다.

가까운 친구이며 구라파 지역 회장인 조셉 엘 워스린은 이렇게 말한다. “몬슨 형제님이 아니었다면 구라파의 이 지역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스테이크와 와드와 예배당과 기적 중의 기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톰은 이곳 성도들에게 온갖 것을 다 주었으며 입고 있는 셔츠까지 벗어 주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그가 자기 양복과 셔츠와 구두를 벗어서 성도의 벗/1986년 10-11월호

주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가 동구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양복을 스무 벌은 벗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그 옷이 모두 중고의 낡은 옷이며 그렇지 않아도 버리려고 하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언제나 완전한 새 것이었습니다.”

이십 삼년 동안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몬슨 형제가 행정가로 일한 분야에는 말일성도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온갖 임무와 중요한 훈련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선교 사업, 복지 사업, 교육, 계보, 가정 복음 교육, 지도자 훈련, 협의, 교과 과정 개발, 신권 정원회 및 보조 조직 프로그램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조직의 천재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모든 필요한 경로와 모든 필요한 점점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한다면 몬슨을 택하겠습니다.”

몬슨 부대관장의 유능한 비서인 린 에프 켄기에터는 이렇게 밝힌다. “그의 생활은 그의 마음만큼이나 조직적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뒤로 미루지 않으며 어떤 것도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폭넓은 경험과 훌륭한 능력은 이제 교회 대관장단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및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과 매일 함께 앉아서 상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에게 굉장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 틀림없다.

1974년 8월 어느 주말에 대회 감리 지명이 불시에 바뀌어서 몬슨 장로가 쉬레브포트 루이지애나 스테이크로 가게 되었다. 토요일 오후 일정에는 모임이 가득 차 있었다. 스테이크 부장이 마치 죄짓는 것같은 목소리로 몬슨 형제에게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열 살된 크리스탈 메스빈에게 축복을 줄 시간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몬슨 형제는 기쁘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며 그녀가 대회 모임에 올 것인지 또는 쉬레브포트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물었다. 스테이크 부장은 마음 내키지 않는 것처럼 크리스탈이 쉬레브포트로부터 상당히 먼 그녀의 집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몬슨 장로는 모임 일정을 조사하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대안으로써 그 대회 동안에 공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녀를 기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시고 그 메스빈 가족을 축복하시리라 자위했다.

그 스테이크 대회가 있기 전에 몬슨 형제가 알지 못했던 크리스탈이 수술을 받아 다리를 잘라냈으나 뒤늦게 암이 그녀의 자그마한 폐에까지 퍼져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총관리 역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솔트레이크시티까지의 여행이 계획되었다. 메스빈 가족은 총관리 역원 가운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크리스탈에게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다 들어 있는 사진을 한 장 보여 주었다. 그녀는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의 사진을 가리키며 “나는 이분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탈의 상태가 너무나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솔트레이크시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계획은 취소하였다. 그녀의 육신은 점점 더 약해졌으나 신앙은 약화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스테이크 대회에 총관리 역원이 한 분 오실 텐데 몬슨 형제님이 오시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내가 그분에게 갈 수 없다면 주님이 그분을 나에게 보내 주실 수 있어요.” 바로 그 무렵에 몬슨 형제는 스테이크 대회 감리 지명에 예상하지 않았던 변경이 있어서 쉬레브포트로 가게 된 것이다.

그들은 크리스탈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그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문슨 형제의 개인 방문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한번 더 구해 보기로 동의했다.

스테이크 부장으로부터 문슨 형제님이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에 크리스탈을 방문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메스빈 가족은 매우 실망했다. 그들은 다시 크리스탈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한 가지만 마지막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간구했다. 그녀가 문슨 형제님의 손으로 축복받고 싶어하는 것이 어떻게든 실현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기도했다.

메스빈 가족이 크리스탈의 침대 주변에 무릎꿇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문슨 장로는 토요일 저녁 모임의 마지막에 말씀할 준비를 하며 노트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단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음성이 거의 육신의 귀에 들릴 만한 크기로 잔락하게 그러나 낮은 메시지를 속삭였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노트가 흐릿해졌다. 그는 그 모임의 주제를 요약해 놓은 대로 따라 가려고 했으나 크리스탈 메스빈의 이름과 모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귀한 은사에 대하여 언제나 충실한 것을 나타내 보였듯이 그 영적인 메시지에 응하였다. 그는 아무리 혼란되고 방해받는 일이 있더라도 다음 날의 대회 일정을 바꾸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을 계속했다.

문슨 장로는 일요일 매우 이른 새벽에 먼 길을 차를 몰고 간 다음 너무나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고 너무 약해서 말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내려다 보았다. 이때 그녀는 병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 있었다. 문슨 형제는 그 장면과 너무나 분명했던 주님의 영에 깊이 감동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자기 손으로 그 어린이의 야윈 손을 잡았다. 그리고 “크리스탈, 내가 여기 왔다.”라고 속삭였다.

그 아이는 온 힘을 다하여 “문슨 형제님,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라고 속삭였다.

그는 착한 어린이의 육신과 영을 보고 제실 것이 틀림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찬 돌보심에 말기는 축복을 해주었다. 그 아이가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축복과 그녀가 살았던 신앙에 찬 인생에 대한 장엄한 폐회 기도가 되었다. 그주 목요일에 문슨 장로가 그녀의 이름을 제시하여 대관장과 십이사도가 둘러앉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여 기도드리는 가운데 크리스탈 메스빈의 순수한 영은 질병으로 피폐해진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갔다.

문슨 집안의 세 자녀는 평생 동안 그들의 아버지가 바쁘기만 했으나 결코 그들이 소홀히 다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기억하였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우리 아빠보다 집에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아빠처럼 자녀들과 함께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함께 했으며 우리는 그런 추억을 소중하게 아끼고 있습니다.”

문슨 집안의 장남인 톰은 캐나다 선교부에 있었던 그 바쁜 시절에는 아버지와 자유로운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문슨 가족은 그 삼 년 동안에 선교사나 기타 선교부 손님 없이 가족끼리만 식사한 날이 삼일밖에 안된다.) 그러나 매일 밤 어린 토미가 잠들기 전에 이층의 아버지 사무실로 가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옆으로 제쳐놓고 체커 게임을 같이 해주곤 했다. 톰은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있어서 그 추억은 그 나름대로 훨씬 뒤에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군사 기본 훈련을 받다 폐렴에 걸렸을 때 아버지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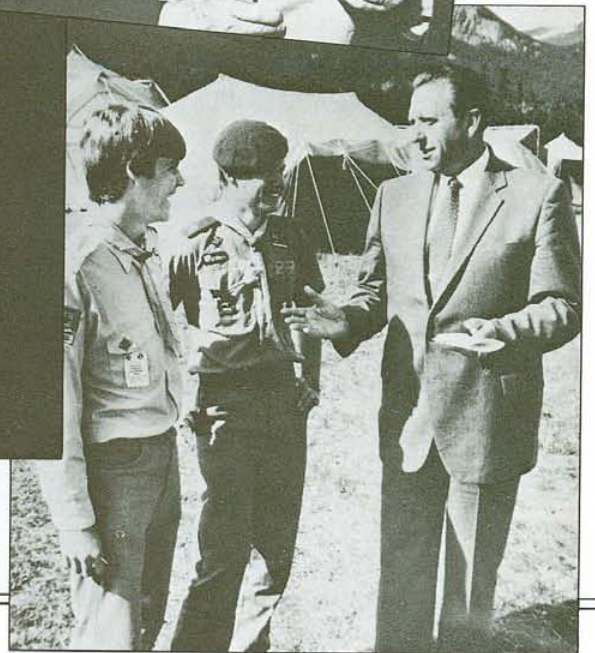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비행기를 타고 오신 것 못지 않게 소중합니다.”

앤은 늘 떠라다니는 서류 가방이 항상 열려 있고 그의 아버지는 늘 필요한 서류를 읽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의 성역의 일부라고 느끼게 하였으며, 임무를 행하며 경험한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함께 나누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가장 즐거운 추억은 아버지께서 지명을 받고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시거나 선교부로 여행하시고 나서 일요일 저녁에 집에 와서 그가 축복사를 부를 때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이나 선교사와 접전하면서 신앙을 복돋아 주는 경험을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문슨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매일, 매주, 매달 부름을 주거나 조처를 취할 것에 대하여 특별한 느낌이나 영감에 찬 권고를 듣고 세셨기 때문이었다.

클라크는 문슨 가족 특유의 즐거운 낚시를 하던 중 아버지가 잠시 낚시줄을 감으라고 하셨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다. 줄을 감고 낚시대를 보트 옆에 내려두고 나서 문슨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약 오분 있으면 너의 형인 톰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법률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는 지난 삼년 동안 법대에서 이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열심히 공부했으며 아마 지금 좀 초조해 하고 있을거야. 우리 이 보트 안에서 그냥 무릎을 꿇자.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겠다.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해라.”

나중에 클라크는 “그것은 내 일생에서 가장 훌륭한 경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클라크는 나중에 그가 매의 둥지를 잘 보게 하기 위하여 부친이 차를 돌려 가던 길에서 백 오십리나 떨어진 곳까지 데려다 주셨을 때에도 역시 감동을 받았다.





상: 몬슨 부대관장은 그의 따뜻한 개인적인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  
 상단 우측: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당시에 총 지배인이었던  
 토마스 에스 몬슨과 데저렛 신문사에 있는 모습.  
 하단 우측: 소년단에 봉사한 것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상을 받은 바  
 있는 몬슨 장로가 캐나다의 소년단 캠프를 방문하고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더라도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평생 동안  
 아버지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늘 해 오시던 일이니까요.”

십대 시절에 톰 몬슨은 프로보  
 강에서 수영하던 도중 휴가객 한  
 사람이 강에 떨어져 용소로 끌려  
 들어가서 곧 익사할 것 같자  
 대경실색해서 고향지르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옆치락뿔치락 하는 것이 톰의 눈에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로 수영해  
 가서 그녀를 잡고는 강둑으로  
 해엄쳐 나왔다.

성도의 빛/1986년 10-11월호

나중에 몬슨 형제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들은 내가 그녀의  
 생명을 구해 준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연히 도움을 주기에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장소에  
 있었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성령의 권고를 따르며  
 언제나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으며 언제나 “주의  
 심부름하는” 현대의 니파이 토마스  
 몬슨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 로비를 이해함

레오나 하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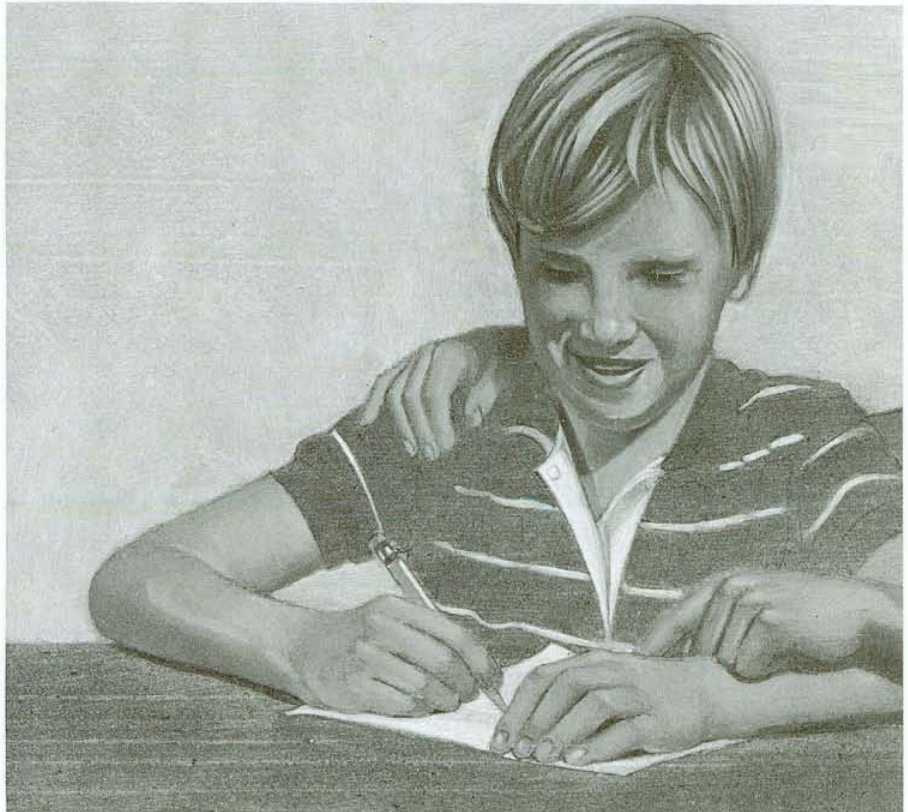
서기는 나의 새 초등학교 안내자반 어린이 명단을 주면서 “로비를 잘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도 그녀의 말을 듣고 나에게 동정의 뜻을 표시했다. 또 다른 자매가 동감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내가 내려가려는데 로비를 맡았던 교사는 그가 겪었던 괴로운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나는 당혹했다. 나는 때때로 교사들이 학교 학생에게 “좋은” 또는 “나쁜”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 밤 나는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그분의 자녀를 일부 맡아서 가르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로비에 대하여 특별히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했다. 나는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내가 로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로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맹세했다.

다음 일요일 날, 로비의 어머니가 나를 한 쪽 옆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의 지나치게 왕성한 활동력에 대하여 경계의 주의를 시키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 행동할 때 이야기해 주면 기꺼이 집에서 훈육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어머니에게 감사했으나 금년에는 사태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초등학교를 맡고 처음 한 두 주일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지나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왜 로비 때문에 문제를 겪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의 반짝이는 푸른 눈에는 장난기가 넘쳤으나 방해를 하지는 않았다. 그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답을 다 알고 있었다.

다른 소년들은 그를 따라가기 어려웠다. 때로는 그가 해답을 줄 것으로 의지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로비는 주목을 받는 것을 기뻐했으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뽐내기까지 했다.

나는 곧 로비만이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맡은 반원 일곱 명이 모두 특별한 문제와 필요 사항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주 그들에게 중요한 복음 원리를 가르치면서 그러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도 애를 썼다.

나는 로비의 필요 사항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스티븐의 필요 사항이 가장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스티븐은 학습 불능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공과가 시작한 후 오분 내지 십분 늦게 도착하여 뒷쪽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다른 소년들은 그를 비웃고 놀렸다. 그러나 그는 받아들여지고 친구가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기 때문에 매주 그것을 조용히 참으며 견디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스티븐은 도착해서 나머지 소년들 사이에 유일하게 빈 자리가 있는 것을 보고 표정이 밝아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자를 재빨리 집어서 뒷자리에 놓았다. 그래서 스티븐은 다시 혼자 앉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냥 놔두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어린이들을 꾸짖고 싶었으나 자제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공과를 계속했다.

그 다음 주 내내 나의 반에 대하여 낙담한 느낌이 들었다. 스티븐을 돕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로비는 점점 다루기 힘들어지고 있었으며 다른 소년들도 내가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지 모르는 사항을 여전히 안고 있었다. 나는 기도했으나 확고한 해결책을 받지 못하고 단지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확신만 받았다.

성도의 빛/1986년 10-11월호

다음 주 개회 순서 시간에는 유난히 로비를 조용히 있게 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여섯명의 다루기 힘든 소년을 조그만 공과 교실로 데려가는 것이 끔찍스러웠다. 나는 스티븐이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그의 눈에서 다시 상처받은 것 같은 느낌을 보는 것이 끔찍했다.

나는 반원들보다 먼저 공과 교실에 도착했다. 나는 문을 열면서 오늘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끝나기 시작하는 날이 되리라는 조용한 확신을 얻었다.

소년들이 달려 들어와서 잘 정리해 둔 의자를 마음대로 다시 배열한 후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들에게 공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일어섰다. 그러나 나는 무슨 말을 할지 확실히 알지 못했으며 내가 한 말에 나 자신도 좀 놀랐다.

나는 소년들에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스티븐이 도착할 때까지는 학교 생활이나 기타 무엇이든지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토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스티븐이 받아들여지고 친구가 있어야 할 것에 대하여 설명했다. 나는 그들에게도 스티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스티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머리를 낮게 하고 문을 열었다. 로비가 뛰어 일어나서 그의 팔을 움켜 쥐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소년들은 그가 그들 사이에 앉아야 한다고 우겼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환영했다. 스티븐은 행복한 미소를 띄고 있었다. 로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의 연습지를 다

끝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스티븐을 도와 주라고 했다.

그해 나머지 기간에 로비는 부탁하지 않아도 스티븐을 도와 주었다. 어느 일요일에 그는 “예언자”라는 단어를 쓰기 위하여 거의 십분 동안이나 그와 함께 열심히 노력했다. 또 한번은 너무나 열심히 도와 주다가 자기가 할 부분을 잊어버렸다. 그는 스티븐이 노력할 때마다 기뻐하며 칭찬해 주었다. 또한 로비의 훌륭한 영향력이 다른 소년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로비가 없을 때에는 다른 소년들이 열심히 그를 대신하여 스티븐을 도와 주었다.

로비의 어머니가 반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가 스티븐을 도와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다.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하고 그녀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언제나 자기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다고 은밀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스티븐의 어머니가 스티븐이 반에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정직하게 그 반의 모든 어린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전에는 자주 다른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으나 우리 초등학교 반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인하여 다른 아이들이 그를 받아들였으며 그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

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 주도록 나에게 기회와 영감을 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임

말일성도는  
멜기세덱 신권 권능을  
어떻게 뒷받침합니까?



제임스 에이 커버  
워싱턴 대학  
신학 연구원 교사

비판자들은 흔히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에 있는 두 성구를 인용하여 말일성도의 신권의 권능에 대한 교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말일성도들도 신권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바로 이 성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대의 제시로 인하여 말일성도는 이 교리와 다른 여러가지 교리를 완전히 알기 위하여 성경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천주 교회에서는 계속적인 권능의 교리가 사도 베드로로부터 현재의 교황까지 연결된다는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첫 성구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요셉 스미스는 교회를 지을 기초가 될 반석은 계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67페이지 참조) 참으로

그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계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경도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구를 잘 분석해 보면 비록 왕국의 열쇠가 시몬 베드로에게 주어졌지만 교회가 그를 반석으로 하여 그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즉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희랍어 본문을 예로 보면 18절에 있는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희랍어는 *petros*로서 이것은 작은 바위나 돌을 의미하는 남성 명사였습니다. 희랍어의 반석은 (“이 반석 위에”) *petra*입니다. 이것은 기반암을 의미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희랍어 원본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petros*, 작은 바위)라 내가 이 반석(*petra*, 기반암)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거대한 반석인 *petra*는 누구입니까? 그 대답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성구에서 반석이라는 희랍어는 마태복음의 구절처럼 *petra*(기반암)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이 닭아 든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닭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린도전서 3:11)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반암과 돌의 관계는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관계에서 계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에게 소개되었을 때 주님은 시몬의 이름을 “게바”(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음. 영어 성경에는 게바를 번역하면 돌(*stone*)이라고 되어 있음)로 바꾸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영감역에서는 이렇게 분명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선견자 또는 돌이라”



앞에서 인용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경험을 이해하기 전에는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국의 열쇠를 약속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지옥문이 계시의 반석을 또는 선견자의 직분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 : 18) 선견자는 우림과 돌뭍을 사용할 권능을 받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알 권세를 받은 특별히 선택된 예언자입니다. “누구도 더 큰 은사를 가질 수 없으나”(모사이사서 8 : 13~18) (신약 교리 주해, 전3권,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레프트사, 1965~73, 1 : 133)

변형의 산에서의 경험은 베드로가 새로운 역할을 맡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산이 계시의 반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 계시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것도 계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반석(베드로)은 큰 반석(예수 그리스도)—계시의 반석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선견자”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지상에서 주님을 대표할 사람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양을 먹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1 : 15~17 참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왕국의 열쇠를 소유할 지상의 선견자가 지상에 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나 “지옥문”이 “이 반석”—petra 또는 계시의 반석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옥문이 절대로 계시의 반석을 아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즉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의롭게 생활한다면 그들은 지옥문을 이길 것이며 교회 그 자체가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안전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부정함으로 인하여 계시가 중단되면 지옥문이 그 백성을 이길 것이다.”(주해, 1 : 389)

천주 교회에서는 현대의 계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황은 반석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선견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신교에서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받아들이지만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선견자인 petros의 역할의 중요성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사건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말일성도로서 참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에즈라 태프즈 벤슨 대판장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선견자 즉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두번째 성구로 가 봅시다. 히브리서 제 7 장은 많은 신교도들이 교회에는 예수님 이외에 신권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분만 멜기세덱 신권을 갖고 계시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천주 교회의 신권에 대항하면서 “모든 신자들의 신권”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완전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기 위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에게도 필요하지 않다”<sup>9)</sup>는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본질적으로 루터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신권의 기능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에게 신권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이외에는 신권 소유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멜기세덱 신권의 기능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분명하게

멜기세덱 신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서한을 쓴 목적은 모세의 율법인 낮은 성약보다 복음 율법인 높은 성약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장에서 그는 높은 율법을 집행하는 멜기세덱 신권이 낮은 율법을 수행하는 아론 신권 또는 레위 신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 방식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장에는 멜기세덱 신권을 통하여 완전하게 된다는 개념(11~12절), 멜기세덱 신권은 한 후손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개념(13~15), 신권은 영원하다는 개념(16~17), 맹세와 성약에 의해서 받게 된다는 개념(20~21), 그리스도의 신권 기능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개념(27~28) 등 신권에 관하여 알려 주는 여러가지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은 유형학적인 것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한 “유형”이며 멜기세덱과 그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권의 반차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소유한 신권 반차의 유형입니다.

24절이 아마도 가장 흔히 오해받고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는 구절일 것입니다. 혼란이 되는 말은 갈리지 아니하나니(unchangeable)로 번역되어 있는 회역어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흠정역 성서 번역자들이 각주에서 “갈리지 아니하나니(unchangeable)”를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지 아니하나니(Or, which passeth not from one to another)”로 바꾸어 번역한 것에서도 이런 혼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신권 집행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신권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지 않았으며 교회에는 정식 신권이 없다는 루터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번역을 사용했다고 하는 확증된 증거도 없고 그 번역을 뒷받침해 줄 만한 문장상의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각주의 번역이 옳다고 주장하려고 시도한 주해사와 어휘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갈리지 아니하나니(unchangeable) 라는 말은 희랍어의 *aparabaton*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고대 희랍에서 그 말의 용법이 오랫동안 연구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학자 가운데 그 말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리지 아니하나니(unchangeable)” 또는 “불변의(immutable)”이라고 번역한 예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랍어 용법에 의하면 가장 좋은 번역은 “불변의(unchangeable)”일 것입니다.

예로서 다음에 나오는 것은 키틀의 신약전서 신학 사전에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전달할 수 없는”은 다른 곳에서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불변의(unchangeable)”라는 번역을 고수해야 합니다.<sup>②</sup> 입증된 희랍어 용어를 편집해 놓은 몰턴 및 밀리건의 희랍어 신약전서 단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문법적인 용법과 비교하여 볼 때 기술적인 용법은 “이전할 수 없는”이라는 번역은 틀린다고 하는 강력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sup>③</sup>

히브리서에 있는 이 장의 본문 자체가 “불변의”라는 번역을 환영하며 “전달할 수 없는”이라는 개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신권의 영원한 본질을 강조하며 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3절) 그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8절) 또 다른 제사장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16절)고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17, 21절)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24절)

문장상으로 봐서 신권이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신권은 영원하며 범법을 통한 것을 제외하고는 결코 신권 소유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의미에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신권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변” 또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합당한 권한을 받아 그 신권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권은 “반차”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었습니다.(21절) 멜기세덱이 “신권의 반차”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리스도만이 멜기세덱 신권을 지니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셨다면 “반차”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는 니케아 이전의 사제들로부터 나온 증거가 있습니다. 서기 135년에 죽은 안디옥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권은 인간의 가장 선한 것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지점이다. 누구든 이것에 대항할 정도로 미친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장자, 날 때부터 아버지의 유일한 대제사장인 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다.”<sup>④</sup>

여기에서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참으로 아버지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멜기세덱 신권 —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를 성신권” — 을 받고 그 아들의 대제사로 성임된 사람에 관하여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신권에 대하여 소지하고 계신 권리와 인간이 성임에 의하여 신권을 받은 것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신권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다른 인간에게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선한 것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나중에 서기 약 168년 경 안디옥에서 감독을 했던 데오필루스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지금의 예루살렘인 살렘성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의로운 왕이 있었다. 그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모든 제사장 가운데서 첫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대로부터 제사장들은 온 세상에서 발견되었다.”<sup>⑤</sup> 데오필루스의 마음에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에 대한 지식이 성경 문장으로부터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계시에서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꼭 필요한 신권의 단순하고 고귀한 진리를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신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주

① 윌리엄 호턴 작, 신교 신학에 대한 평신도의 지침. 29~30페이지 참조. 뉴욕: 맥밀란 회사, 1955년.

②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더블류엠 비 어드먼즈 출판사, 1967년 743페이지.

③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더블류엠 비 어드먼즈 출판사, 1967년, 53페이지.

④ 알렉산더 로버츠 및 제임스 도널드슨 편집, 니케아 이전의 사제들 제10권 참조,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더블류엠 비 어드먼즈 출판사, 1979년, 1:90

⑤ 니케아 이전의 사제들 2:107 참조



# 하나님 아들 구속주

MY REDEEMER LIVES

Gordon B. Hinckley

G. Homer Durham

즐겁게 ♩=80-92

1. 하 나 님 아 들 구 속 주 살 아 계 심 을 아 나 니  
 2. 내 신 앙 의 만 세 반 석 지 상 인 간 의 참 회 망  
 3. 당 신 만 주 실 수 있 는 영 과 평 화 허 락 하 사

고 통 과 죽 음 이 기 신 나 의 주 님 왕 이 시 라  
 더 나 은 길 밤 히 는 햇 불 죽 음 장 막 건 너 는 빛  
 영 생 향 한 외 로 운 길 따 를 신 앙 주 움 소 서

작사 :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1910 © 1985 LDS  
 작곡 : 지 호머 더럼 장로 1911~1985 © 1985 LDS

교리와 성약 76:22~24, 41~42  
 욥 19:25



# 집을 향하여

하인즈 라테가  
산드라 스톨링즈에게  
들려준 이야기

내가 15살 되었을 때 우리 학급 전원이 독일군에 징집되어 갔으며 우리 선생님도 우리와 같이 갔다. 당시는 세계 제 2차 대전 중이었으며 우리는 대공 포대에 배치되었다.

우리 가족은 전쟁을 굉장히 반대했으나 나는 입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내가 입대를 거절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끌려갔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누이를 남겨 둔채 작은 후베르센 농촌 마을을 떠났다. 이 마을은 내가 자란 하이스테르베르그 숲의 기슭에 있었다.

나는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드렸다. 나는 주님께 내가 올바른 곳에 있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으나 만일 내가 처하는 상황에서 앞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 주시는 인도의 안내를 의심없이 받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우리 학급 학생들과 나는 하노버 근처에 배치되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약 300명의 우리 부대가 함께

모였다. 그러면 보통 부대 회식이 있었으며 나를 빼고는 모든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하곤 했다. 나는 처음에 모르고 있었으나 우리 부대장이 그런 회식 시간에 나를 지켜 보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나에게 왜 술과 담배를 안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약간 부끄러웠으므로 그냥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부대 전체에서 유일하게 술과 담배를 안하는 사람이었으며 또 유일한 말일성도였다고 생각한다.

그는 계속해서 “자네가 그것을 안하는 데는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라고 질문했다. 나는 그에게 그런 것을 삼가하는 것이 몸에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질문을 좀 회피하려고 했다. 15세 밖에 안된 자에게는 사람들이 비웃고 술과 담배를 안하면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견디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동료들이 자주 나를 놀렸으며 나의 부대장은 그것을 여러 번 들었다.

“너 물론이지,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는 “왜 나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지?”라고 물었다.

나는 “저는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좀 부끄럼을 타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그냥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뀔지도 몰라.”

어느 날 밤 우리는 회식을 하면서 큰 탁자에 모두 함께 둘러 앉아 있었으며 나를 빼고는 모두 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시내에서 산 청량음료를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부대장이 다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라테, 일어 서.” 그리고는 전체 부대원에게 말했다. “나는 제군들에게 라테가 물론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그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존경하고 싶다. 만일 누구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놀린다면 그 사람을 영창에 보내겠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이 부대원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시내에 가서 너무 많이 마실 때 그들이 귀대하도록 책임지는 것은 라테 자네 임무다.”

그 순간부터는 매일 밤 나와 함께 가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들은 나를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들어가기가 무섭게 이렇게 말했다. “하인즈에게는 술을 주지 말아. 그는 우리를 부대로 데려가야 해.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아. 그를 귀찮게 하지 말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어떤 방식보다도 더 많은 친구를 얻었다. 나의 현명한 부대장이 알아차린 것처럼 이런 솔직함보다 더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언제나 나보고 같이 가자고 했으며 그들이 나를 보호했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하나의 간증이 되었다. 두 번 다시 그 누구도 감히 나에게 술을 권하려 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기 약 육개월 전에 나는 신병들이 레이다 장비에 관한 훈련을 받는 부대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하르츠마운틴에 있는 시센에 배치되었으며 나는 십 칠세 가량 되었다. 어느 날 우리는 독일군에 관하여 글을 써야 했으며 나의 글이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장교가 나를 전 부대원 앞에 서게 하고 이렇게 말했다. “최우수 글을 쓴 것을 축하한다. 나는 자네가 독일 공화국 장교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에게 자네같은 잠재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며 나는 오늘 밤



자네의 지원서를 기대하겠다.”

나는 “오늘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로 화가 나서 나를 처벌하고 싶어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일 자네에게 다시 묻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시 묻겠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국가 사회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 부친은 유대인의 친구였으며 우리는 언제나 집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 장교는 나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자원하지 않는다면 뒤에 남아서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도록 그가 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머물고 싶지 않은 곳에 머물 수 밖에 없었지만 일단 그 장교가 나에게 머물러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하여 매우 큰 안도감을 느꼈으며 바로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인 것처럼 느꼈다. 내 친구들은 모두 러시아로 갔다. 그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왔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 주님은 내 생명이 부지될 수 있도록 내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다.

전쟁 동안에 나는 자주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내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로 옮겨진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평화를 축복받았다.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 네 사람의 훈련 조교와 나는 베를린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히틀러가 당시에 거기에 있었으며 영국군과 미군이 이미 우리가 있는 곳에 가까이 와 있었다.

우리는 베를린으로 가겠다고 말했으나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하여

기도했으며 집으로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쟁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베를린으로 가도 소용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제일 친한 친구에게 “컨테르, 나는 안 갈거야. 나는 집으로 갈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나와 함께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에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언제나 널 지켜보았어. 너는 매우 종교적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나는 너를 존경해 왔어. 나는 네가 내리는 결정을 믿어. 왜냐하면 그런 결정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인도를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

다른 세 명의 조교도 우리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 다섯 사람은 베를린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떠났다. 우리는 시야를 벗어나자마자 숲속으로 급히 달려가서 가지고 갔던 민간복으로 갈아 입었다.

미국인들은 이미 도착해서 숲 옆의 간선 도로에 있었다. 우리는 산 꼭대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은 아직까지 안전했다. 집까지 여행하는 데는 이삼 주 걸릴 것이었다. 우리는 숲속에서 다섯 사람이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잤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자리를 바꾸어야 했는데 그것은 양 끝의 사람이 너무나 춥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가지고 간 식량으로 사흘을 먹었으며 그 나머지 기간에는 숲속에서 탄 열매를 먹었다. 때로는 독일인 가족이 우리에게 식량을 주기도 했다.

나는 맨 처음 미국인을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울창한 소나무 숲을 통과했으며 길을 건너야 했다. 우리는 나뭇가지를 짓터며 나아갔는데 갑자기 커다란 탱크가 앞에 나타났으며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나는 겁이 났다. 나는 그 전에는 미국인 탱크나 미국인을 본 적이 없었다. 탱크 꼭대기가 열리고 미국인이 한 사람 나왔다. 미국인이

석방시켜 준 소련 포로들이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미국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지 물었다. 나는 우리가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안돼. 이리 올라타. 우리가 너희를 데리고 간다. 다음에 멈출 때는 너희를 트럭에 실어서 수용소로 보내겠다.”

탱크 위에 앉은 소련 군인들을 보고 우리의 곤경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전쟁 중에 내 마음속에는 평생 동안 교회에서 배운 사랑의 느낌이 있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우리 부대에 수용된 소련 포로들은 대우를 잘 받지 못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별로 없이 지냈으며 우리는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식기를 찢으라고 했으며 그들은 동의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그 안에 음식을 남겨 주었다.

우리 지휘관이 그것을 보고 나를 불러들였다. “식기를 가지고 뭘 하고 있나?”

나는 “소련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식기를 닦아 주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확인해 보았는데 그 안에는 음식이 있었어.”

“우리는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기에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지? 내가 자네의 행동을 보고할 수도 있어. 그러면 자네는 곤경에 처하게 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게.”라고 말하면서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가 음식을 준 소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쪽지를 한 장 적어 주었다. 그는 언제든지 내가 소련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들에게 이



쪽지를 보여 주라고 했다.

나는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탱크를 만났을 때 그것을 생각해 냈다. 나는 그것을 꺼내서 소련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읽고 갑자기 독일어로 “친구! 친구!”라고 말하고는 미국인들에게 내가 소련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 미국인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이 소련인들에게 친절했다고 하는군. 포로 수용소로 데려 가지 않을테니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우리는 숲을 통하여 행진을 계속하여 매일매일 집으로 더 가까이 갔다. 산길에서 우리는 저 밑에 미국 탱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맨처음 미국인들과 만나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언덕의 숲을 통과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문득 나는 어처구니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밀으로——바로 그 탱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미쳤군! 저기 탱크가 안보이나? 그들이 너를 당장 쏘아 죽일꺼야.”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나는 내려가야 했다.

쿤테르가 “하인즈,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했니?” 라고 물었다. 나는 “그래”라고 말했다. “그러면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바로 그런 식이었다.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세 사람은 뒤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안가겠다. 너희는 미쳤어. 너희들은 그들의 총칼 앞으로 곧장 걸어가게 될거야.”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언덕을 내려갔다. 나보다 훨씬 더 큰 쿤테르가 나의 팔을 부축하고는 거의 끌다시피 했다. 얼마 지나서 다른 세 사람도 우리를 따라서 달려왔다. 그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숲을 빠져 나왔다.

왼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작은 농가가 있었다. 우리가 나무 사이로 빠져 나오기가 무섭게 그 집의 문이 열리고 어떤 남자가 나와서 “빨리 들어와!”라고 말했다. 우리는 안으로 달려들어 갔으며 그는 우리가 들어가자 문을 꽁 닫았다. 그리고는 우리를 소 외양간의 짚더미 속으로 밀어넣었는데 독일 군인을 숨겨 주는 것은 금지 되어 있었으며 미군으로부터 엄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짚더미 속으로 숨기가 무섭게 미군이 탱크와 트럭을 타고 바로 그 산으로 밀려 올라 갔다. 그들이 그 위로 올랐던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들은 몇 시간 뒤에 트럭에 독일 군인을 가득 싣고 돌아와서 수용소로 보냈다.

다시 한 번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곳에 내가 있게 해주신 것이다. 미국인들이 산을 깨끗하게 치우고 없어진 다음 우리는 그 집을 나와서 다시 집을 향하여 나아갔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한 번 미국인에게 붙들렸다. 처음에 나는 영어를 말하지 않았다. 나는 영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사람들을 그냥 여기에 있게 하자. 다음에 오는 트럭에 태워서 수용소로 보내도록 하지.” 이삼 분 마다 트럭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 트럭이 올 것으로 생각하며 그곳에 앉아 기다렸다. 우리는 한 시간 이상이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트럭이 한 대도 오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현병 한 사람에게 갔다.

내가 그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자 그는 “아니 갑자기 너 영어를 말하는구나.”라고 말했다. “예, 저는 영어를 할 줄 압니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냥 겁이 나서 말하지 않고 있었습시다.”

그는 나에게 “너 몇 살이나?”라고 물었다. 나는 만 십 칠년 육개월이

되었다고 말했다.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나는 모든 것——우리가 무슨 일을 했으며 왜 우리가 민간인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즉 집으로 가고 싶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했다. 그는 전화를 들고는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가 있었던 부대로 확인했다. 그리고는 한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너만한 나이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만일 그놈이 어떤 사람에게 ‘집에 계신 어머니에게 가고 싶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 길로 가면 미군 본부가 있다. 그러나 이 길로 가면 그들이 너를 볼 수 없어. 행운을 빈다.

마침내 우리는 집에 거의 다왔다. 모든 것이 달혀 있었다. 기차, 자동차, 버스, 전화 등 아무 것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천을 따라 숲을 통하여 계속해서 걸어가다. 나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나의 이웃 집에 도착하였다. 나는 그 이웃집의 뒷뜰 문을 통하여 가고 싶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뒤에 남겨 놓고 그 문을 열었다. 들쥐를 쫓기 위하여 그곳에 장치되어 있었던 작은 총이 발사되었다. 그 소리에 나와 그 이웃들이 혼비백산했으며 이웃 사람들이 곧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안전하게 집에 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나는 내 친구들이 자기 집으로 계속해서 떠나기 전에 누이가 음식을 줌 가지고 그 숲으로 가게 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기도가 나의 힘이 되었다. 때로는 기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나는 언제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매우 화평스런 느낌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주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난 적이 하루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 전쟁 기간에  
 내 마음 속에는 사랑의 느낌이  
 있었다. 나는 증오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내 생명을 건져 주셨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님에게 일치하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나는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다면 그의 인도하심이 나를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

기도가 나의 힘이 되었다.  
 때로는 기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성도의 빛/1986년 10-11월호



# 새처럼 날아

테리 제이 모이어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일곱 살 되었을 때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가 그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르지만 생각이 안 난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착한 아이이고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간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세요?”

“그렇단다. 네 신앙이 강하고 또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을 너에게 주실 거야.”

1944년 그 여름 밤에 나는 침대에 누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생이 한 명 더? 그럴지도 모르지. 새 야구공? 그것은 생일이 되면 생길거야. 전쟁이 끝나고 아빠께서 집으로 오시는 것? 그것 참 좋아.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일곱 살 된 내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염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새처럼 날고 싶은 것이었다.

그렇게 못할 이유는?

새도 날고 박쥐도 날고 연과 종이 비행기와 벌레와 나비도 나는데 왜 내가 날지 못한단 말인가?

다른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할까. 우리 선생님이 놀라고 감탄해서 얼마나 숨을 죽이고 보실까. 나의 친구인 조이 허시버거와 지미 존슨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나는 동생인 린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침대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나는 (어머니가 하시는 것처럼) 팔짱을 끼고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나는 이것이 큰 신앙의 확실한 표시라고 생각했다.) 얼굴을 잔뜩 찡그린 순간의 그 긴장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혼자서 소리내어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날고 싶습니다. 정말로 날고 싶습니다. 내가 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면 정말로 착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의자를 캄캄한 방의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그 위로 기어올라갔다. 나는 팔을 넓게 펴고 다시 한 번 속삭였다. “제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날게 해주세요. 엄마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팔을 세차게 펴려이기 시작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점점 더 빨리 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 팔이 피곤해졌다.

나는 다시 앉아서 그것에 대하여 생각했다. 아마 내가 어떤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팔을 흔들면서 의자에서 뛰어내려야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의자 위로 기어올라갔다. 이번에는 정말로 팔을 열심히 흔들면서 의자에서 위를 향해서 바깥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떨어졌다. 쿵! 곧 어머니가 무슨 소리가 하고 문에 나타나셨다.

그 다음 날 나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신앙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어. 아마 며칠 밤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를 더 악물고 얼굴을 더 찡그리는 것이 비결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대로 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며 나의 신앙과 열성이 자라났다. 일요일 밤이 되었을 때는 틀림없이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나는 의자 위로 올라가서 팔을 펼치고 다시 한번 주님에게 간구하고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내가 날게 해주실 것으로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내 팔이 아래 위로 점점 더 빨리 움직였다. 나는 위로 또 바깥으로 뛰었다.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 쿵! 다시 이층 침실로부터 무슨 소리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뭐가 빠졌지? 나는 이를 꼭 깨물고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왜 효과가 없지? 왜 나는 의자에서 솟아올라서 방 주위를 날아 다니지 못하지? 나는 침대에 누워서 오랫동안 생각하며 의아해 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집의 뒷뜰에 있다가 어머니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

검은 딸기였다. 나는 전에 어머니에게 차고 뒤에 있는 거대한 야생 검은 딸기 나무에서 딸기를 따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드렸던 것이다. 그러나 날씨가 더웠으며







우리가 내년 일월에 반드시 잼을 만들기 위하여 팔월에 날카로운 딸기 나무와 가시와 싸우고 싶지 않았었다.

나는 잠시 동안 어머니의 부르시는 소리를 못들은 척했다. 바로 그때 영감이 떠올랐다. 내가 잠시 몇분 동안도 어머니의 심부름을 못해드린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날게 해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부터 나는 광적인 심부름꾼이 되었다. 나는 검은 딸기를 닦을 뿐 아니라 장작을 췌다. 나무통을 가득 채웠다. 현관을 깨끗이 쓸었다. 식탁을 정돈하고 가게에 심부름을 갔다. 그리고는 팔과 손이 가시에 긁혀 피를 흘릴 때까지 검은 딸기를 더 닦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점점 더 심부름할 것이, 없느냐고 졸라서 어머니를 지치게 했다. 이제 주님이 어떻게 내 부탁을 거절하실 수 있을까? 나는 이주 동안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으며 굉장한 신앙을 보이고 매일 착한 일을 하고 검은 딸기를 양동이로 여러 되를 닦았다. 이제 나는 틀림없이 날게 되리라!

그날 밤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캄캄한 침실에서 다시 의자로 기어올라 갔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될거야!

날지 못했다. 위로 바깥으로 포물선을 그린 후에 다시 밑으로 포물선을 그린 후 그 귀에 익은 쿵하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끝장났다.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 많은 기도와 신앙과 착한 일에도 불구하고 조이와 지미처럼 땅에 그대로 묶여 있었다. 무엇이 빠졌을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날고 싶어하는 나의 소망은 말하지 않고 단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서만 물어보았다. 그 답으로 기도하는 방법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에 대한 공과를 들었다. 거기에 해답이 있었다. 나는 내가 그것을 빠뜨렸던 것에 깜짝 놀랐다. 나는 주님을 완전하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까지는 낮은 의자에서 뛰어내렸던 것이다. 내가 팔을 져는 것이 효과가 없더라도 최소한 목이 부러지지는 않을 낮은 의자에서 뛰어내렸던 것이다. 주님은 내가 실패하면 다치기에 충분한 높은 곳으로부터 뛰어내림으로써 진정한 신앙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입증하리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언제나 어두운 침실의 은밀한 곳에서 시도했던 것이다. 다음에는 정말로 높은 곳으로 청중이 보는 환한 대낮에 뛰어내려서 진짜로 신앙을 입증하리라.

그 다음 주 내내 기도했다. 신앙과 기도와 언제나 지나 어머니를 돕는 것이 계속되었다. 토요일 오후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계획을 린과 조이 허스버거와 지미 존슨에게 설명했다. 신앙과 착한 일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를 악물고 얼굴을 잔뜩 찡그렸을 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설명했다. 주님을 완전히 믿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모험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는 사다리를 타고 차고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린과 지미와 조이는 놀라서 쳐다보면서 땅에 남아 있었다.

조이는 내가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이가 신앙과 일과 기도에 대하여 될 알라?

드디어 차고 지붕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았다. 지붕 위에서 땅까지는 다른 곳에서 볼 때 보다 훨씬 더 멀게 보였다.

나의 바로 밑에는 그 무서운 검은 딸기 덩불이 있었다. 그것은 땅에서

볼 때보다 더 높고 더 넓게 보였다. 무시무시한 가시로 덮혀있는 크고 긴 가지가 내가 서 있는 곳까지 거의 닿고 있었다.

나는 의심이 나는 생각을 지워버려야 했다. “안되면 어떻게 하지? 날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검은 딸기 덩불에 뛰어내리게 되면 어찌지?” 그러나 의심하면 안된다. 내가 의심한다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의심은 신앙의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단순한 논리로서 내가 그 무서운 검은 딸기 가시로부터의 유일한 보호책을 없애버린다면 그것이 나의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입증하리라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셔츠를 벗었다. 조이는 그것이 그가 본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러 가고 있었다.

나는 조이에게 앉아서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으나 그는 어머니에게 알려주러 갔다. 이제 서둘러야 한다!

밑에 검은 딸기 가시가 있다면 어떻단 말인가? 나에게 충분한 신앙이 있다면 내가 차고 지붕에서 뛰어내려 날기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눈을 감고 주님에게 그가 신앙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또 그가 착한 소년이고 엄마를 도와 드리고 주일학교에 간다면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를 상기시켜 드렸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팔을 점점 더 빨리 져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전히 눈을 꼭 감은 채 차고의 지붕에서 바깥으로 또 위로 향하여 큰 야생 검은 딸기 덩불 위로 셔츠도 입지 않고 뛰었다.

나는 눈을 다시 뜨기 전에 내가 부엌의 식탁에 반듯이 뉘어 있는 것을 알았다. 니콜즈 의사가 가시로 덮혀 있긴 하지만 크게 자란 “베게” 안으로 뛰어내리고도 어떻게 빠져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무어라고 이야기 하면서 막 떠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내 몸에서 수십 군데나 긁히고 찢어진 곳으로부터 흘러 나온 피를 계속해서 닦아 주시는 가운데 형견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니콜즈 의사가 떠난 다음 어머니는 눈이 둥그레진 친구들을 쫓아내었으며 나는 그 다음에야 눈을 떴다. 나는 어머니의 팔과 손과 얼굴이 수십 군데나 긁힌 상처로 덮인 것을 보고 어머니가 나를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피고 팔로 꼭 껴안아 주셨다. 어머니는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투에서 입은 상처에 대하여 너에게 명예 상의 기장을 수여하며 또 너의 용기에 동감 훈장을 줘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어리석은 것에 대하여서도 메달이 있나요. 나는 너무나 바보스런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우리는 누구든지 때로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 우리는 실수를 하고 그런 실수로부터 배우며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야.”

나는 한참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이으셨다. “그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 어머니는 어떻게 아시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어머니는 “물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잊을 때가 가끔 있어. 그리고 그의 응답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안돼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 그러나 안돼라는 것도 응답이지 않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라고만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니? 내가 말하는 것을 알겠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엄마, 나는 정말 날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네 아빠가 해군에서 돌아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될거야. 너는 아빠와 함께 공항에 가서 돈을 내고 반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어. 너의 날게 해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단다. 그러나 네가 팔을 흔들면서 차고 위에서 검은 딸기 덤불로 뛰어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는 않을꺼야.”

이 무렵 출혈이 모두 멈추었으며 긁히고 찢어진 자리에는 모두 다 작은 붕대를 감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다친 곳을 치료하려고 돌아서시면서 나에게 미소를 보이시고 엄한 척하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차고에서 검은 딸기 덤불로 뛰어내리는 것에 관하여 한 마디 하겠다. 젊음이, 그대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한다면 그 명예 상의 기장을 압수하겠오.”

그때 어떤 음성이 나의 백일몽을 깨웠다. “곧 함부르크 국제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안전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날게 해 달라던 어린애같은 기도는 참 이상했다. 한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다.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지는 않았다. 아버지와 함께 작은 비행기를 타고 우리 고향 위를 비행한 것은 그 뒤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독일 함부르크 선교부로 가는 큰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다. 응답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 것 같이 보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나는 안전 벨트를 뺐으며 내 마음 속으로 작은 기도가 스쳐갔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살 된 어린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 진수 중의 진수

조운 시 한센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 아이스크림이나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아이스크림은 최고라야 합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세계에서 가장 달콤하고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만 입에 넣으면 나는 황홀감에 빠지고 맙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다른 어떤 아이스크림보다 조금 비싸지만 나는 그것을 먹을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모두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이며 이 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을, 심지어는 여러분이 듣는 음악까지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좀 어려운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선택합니까?

들음만한 가장 좋은 음악을 선택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통적인 민족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이 가장 훌륭한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그것이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통적인 민족 음악에도 클래식 음악, 재즈

음악, 록 음악에도 좋은 음악도 있고 나쁜 음악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음 음악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연주하는 음악가와 그들의 솜씨를 안다면 그들의 음악을 훨씬 더 듣고 싶어질 것입니다. 음악 팀 중에는 노래가 단지 우습거나 외설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팀이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 팀이 이상하거나 평범하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악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런 팀은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음악을 수없이 반복해서 심지어는 그 팀이 해체된 다음에도 듣기 위하여 그들의 가장 최신의 레코드나 테이프를 사고 싶어하게 할 음악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기대하는 자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에 좋은 음악 이런 팀의 악기나 음성은 내가 들음 때마다 울리치게 되는 귀를 찢는 것같은 소리나 비음악적인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화음 구조와 음악 전개 이런 팀은 몇 개밖에 안되는 똑같은

화음을 수없이 반복하는 대신에 창의성과 신선함을 음악 속에서 보여 줍니다.

가사에 있는 시적인 요소 내가 좋아 하는 팀은 섹스, 마약, 폭력을 암시하는 말 대신에 언어에 대한 깊은 지식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어휘를 선택 합니다.

나는 단원이 건전한 음악 공부와 훈련을 쌓은 팀의 곡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음악은 인간의 음성에 대한 지식과 그 그룹에서 사용하는 전자 음향 합성 장치 및 기타 악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어떤 훌륭한 음악가가 한번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의 기본적인 규칙을 알아야 창의적이 되고 그것을 올바르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구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규칙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팀이 너무 많다는 것같이 생각 될 때가 흔히 있습니다.

2. 음악이 어떤 면에서든 나를 놀라게 하면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화음 구조, 리듬, 소리가 신선하면서도 즐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생각은 앞의 첫째 규칙과 비교적 가깝습니다. 나는 창의적이고 음악의 기본적인 규칙을 통달했으며 그 기초 위에 현명하게 음악을 전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팀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때로 내가 어떤 특정한 팀의 연주에서 듣게 되는 노래가 지난



번에 그들이 연주할 때 들은 곡과 똑같은 것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깨뜨리고 싶어하지 않는 음악적인 점진 안에 꼭 갇혀 있습니다. 나는 그런 팀의 음악을 들으면 기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으며 다시 그 팀의 음악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3.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어떤 레코드나 음악 테이프를 팔기 위하여 굉장한 범석을 부린다면 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를 좀 주저합니다.

나는 신문과 텔레비전의 광고를 그 동안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만 가장 좋은 식당에 대하여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소문에 의하여 빨리 퍼집니다. 나는 음악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팀이나 레코드의 판매 책임자가 그 음악이 저절로 팔릴 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자신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이 사게 하기 위하여 광고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팀이 정말로 잘 한다면 우리는 친구, 라디오 방송, 신문 기사를 통하여 어떻게든 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합니다.

4.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규칙은 어떤 노래 가사가 있다면 그 메디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보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나를 고상하게 해주고 성장하게 해주는가?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관념에 대하여 또는 오래된 관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가? 이 음악은 가사나 음조에 있어서 훌륭한 방식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위안받고 휴식하는 느낌을 받는가?” 만일 어떤 음악이 이런 요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만족시키 준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안해 주고 휴식하게

해주는 음악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음악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빠른 말같이 들린다는 것은 나도 압니다. 그러나 강한 리듬이 있으면서도 액센트가 강하지 않은 음악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을 알리고 있는 액센트가 강하지 않은 음악을 듣거나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때에는 방향감과 확고한 마음과 평온한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나의 신체로부터 풀려나가고 싶어서 초조해 하는 에너지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현대 음악도 우리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안에서 보내는 일종의 음악으로 된 침낭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래에서는 어느 정도 위안을 찾을 수 있지만 음악을 세상으로부터의 차단막으로서나 상처, 분노, 억압, 좌절로부터의 도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음악은 자신의 감정을 옆으로 제쳐 두는 대신에 자신의 감정을 상고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가 흔히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좀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장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문함으로써 자신이 듣는 음악을 평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음악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혼란한 느낌이 들게 합니까? 음악같이 설득력이 강한 것이 없습니다. 음악처럼 인간의 영혼을 일깨우거나 흥분시키거나 바보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 이보다 더 강한 어떤 도구를 쥐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나는 차를 몰고 가면서 지방 방송의 “새로운 음악”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십오분 동안 살인을 조장하는 노래와 노골적으로

성을 자극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비록 이 십오분의 프로그램이 언제나 내가 들은 그때와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음악이 우리 표준에 맞지 않을 때는 라디오를 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할 만한 가치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좀더 우아하고 사랑이 많고 쓸모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라디오를 꺼야 할 순간을 깨닫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들을 만한 정말로 좋은 음악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로 어지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머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좋은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보다 유리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그 개념을 음악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들을 만한 가장 좋은 음악을 선택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음악의 스타일이 어떤 것이든지 이것은 그저 단순한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입니다.





0315011

마크 로빈슨



#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리차드 더블류 클롬프

우리는 그 옛날 도시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아치형 문을 통과하면서 자전거의 페달을 점점 더 세게 밟았다. 나는 북부 독일의 아름다운 도시 크우벡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800년전에 지어진 그 거대한 성벽을 볼 때마다 늘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좁은 자갈길 위를 덜컥거리며 달리는 동안 자전거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에 급급했으므로 그 벽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았다. 우리가 클라이네 부르그 스트라세에 있는 우리의 작은 이층 아파트까지 동반자와 시합하는 동안 나의 앞 바퀴에 붙어 있는 자전거 발전기가 쾅쾅거리는 소리를 냈다.

보통 피터슨 장로가 먼저 집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그가 선임 동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삼단 기어가 달린 자전거를 갖고 있었고 나는 우리가 곱땡이 자전거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서 우리 아파트를 향하여 갈 때는 두 사람 다 거의 나는 듯한 속력이었다. 내가 마지막 거리를 힘껏 페달을 밟으면서 달리는 동안 피터슨 장로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얼굴에 만족스런 미소를 띄며 계단을 절반 가량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자전거를 정면 입구에 세우고 문을 잠그고 두 사람 다 약 삼 개월 동안 집이라고 불렀던 곳까지 좁은 계단을 황급하게 올라갔다. 우리는 급히 양복과 넥타이를 벗고 작은 냉장고로 갔다. 그 냉장고는 우리에게 밤에 요구르트를 제공해 주었는데 그것은

크림형의 담백한 요구르트로서 우리는 그것을 딸기 통조림, 생 오트밀, 전포도와 함께 먹었다.

우리는 음식을 축복한 다음 우리가 만든 스낵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토론하였다.

피터슨 장로는 요구르트를 한 입 가득히 먹고는 “프라우 말쑤가 침례받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약속한 대로 물문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아마 두 사람 다 침례받을 겁니다.”

“내일은 싸세 자매님 댁 근처의 이웃에 있는 마지막 두 길을 끝낼시다. 그리고는 가가호호 방문할 새로운 지역을 찾아보기 시작합시다.”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나는 들어가서 단 한 가지 토론도 가르치지 못하고 하루에 대여섯 시간 동안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거든요.”라고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요구르트를 먹을 때 사용하는 그 큰 컵을 씻고 옷을 갈아 입고 무릎을 꿇고 개인 기도를 드렸다. 나는 우리가 다음 날 실제로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훌륭한 가족에게 (나는 항상 가족을 가르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가르칠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토론 하나를 마음 속으로 메모하며 복습했다.

우리는 조용히 침대로 들어가서 곧 잠이 들었다. 밤 11시 경 피터슨 장로는 전화 소리에 잠이 깨었다.

“클롬프 장로, 일어나십시오. 선교부장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나는 전화를 들기 전에 내 머리로부터 잠을 흔들어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선교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클롬프 장로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로님의 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장로님의 부친께서 방금 돌아가셨답니다. 누님은 장로님이 그곳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에 남쪽 배바다주에 있는 형님의 집으로 누이와 어머니에게 전화해 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무엇이든지 장로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하십시오.”

나는 몇 마디 말을 불명확하게 웅얼거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작은 부업으로 가는 길의 어두운 곳에서 신발에 걸려 넘어졌다. 나는 창문 밖으로 벌이 찬란히 빛나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내가 방금 들은 것이 정말로 들은 것일까? 라고 자문했다. 내 얼굴에 흘러내리는 차가운 눈물이 내가 자지 않고 있었으며 아버지에 관한 그런 말이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 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악몽을 더 꾸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이 틀림없다.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건강하고 힘이 세셨어. 그는 중풍으로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기 전까지는 건강하였다. 그분은 대부분의 나의 친구들의 부친보다 나이가 드셨지만 내가 자라고 있는 동안 늘 건강하였다. 내가 독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공항에서 나를 힘껏 껴안아 주시고 눈물을 감추려고 하시지



나는 부엌 창문 밖으로  
찬란히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다.  
방금 아버지에게 대하여 들은 소식을  
믿을 수 없었다.

않으셨던가? 세 아들 가운데  
마지막 아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한 사업을 보내시면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셨던가? 그분은 당신의 선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내가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던가? 그가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아빠는 아니야.

나는 작은 창을 통해 경이로운  
밤을 물끄러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어린  
소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오리온 성좌와 플레이아데스  
성좌를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저기를 보십시오.  
나는 북두칠성과 북극성도  
찾았었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친이 당신과 함께 계시며 그가  
안전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내가 결코 오지 않는 외적인  
표적을 기다리는 동안 나의 마음과  
가슴은 가슴저미는 추억으로 가득  
찼다. 우리가 스테이크 부장의  
사무실에서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던 날 아버지와 내가 모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던가 하는 것이  
생각났다. 나는 그들이 둥글게 나를  
둘러싸고 아버지께서 나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장로로  
성임하실 때 그 손에서 느꼈던 힘을  
기억했다.

그들은 성임이 끝나고 열렬하게

나의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릭 장로, 우리는 형제님이 훌륭한  
선교사가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그의 안개 낀 눈을 쳐다  
보면서 그도 내가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추억이 사라지고 나 자신이  
공부하도록 프로그램을 짠 그  
토론이 머리 속으로 대신해서  
들어왔다. 눈물이 내 뺨에서 퉁퉁히  
마르는 가운데 구원의 계획의  
상세한 내용이 내 마음을 스쳤다.

나는 전세와 천국 회의를 다시  
검토했으며 아버지가 거기 계셨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받으셨으며 우리 누구나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느낌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가 행하시는 것에 의하여  
그가 어머니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가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언제나 더 잘 알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한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로 하여금 가족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복음이었다.  
교회에서 우리 부친처럼 수많은  
다른 직책을 맡아서 봉사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첫째 지체와 둘째 지체를  
성공적으로 지켰다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밝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의 지상의  
부모님과 오십년도 더 전에 죽은  
여동생과 다시 상봉하는 것을  
상상하려고 애썼다. 류 삼촌과 빅  
삼촌이 팔을 벌리고 아버지가 선교  
지역에서 전근하는 것처럼 다음의  
봉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 보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작은 부엌 창문 밖을 계속해서  
내다 보는 동안 이런 생각이 나오  
하여금 미소짓게 했다. 나는 부친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어떤가?  
그들은 결혼한 지 거의 사십년이나  
된다.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사실 것인가?

이번 주가 클롭프 가족이  
네바다주 파카카에서 다시 모이는  
주라는 것을 기억할 때까지는  
가슴이 굉장히 조였다. 나의 형과  
누나 네 사람과 그들의 가족이 모두  
어머니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시도록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머니는 자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자녀로부터 위안을 받으실 것이다.  
어쨌든 그것이 굉장히 공평한 것  
같았다. 또 나는 어머니가 약하거나  
무식하거나 신앙이 없는 여성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어머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며 바로 그 진리의  
샘으로부터 힘을 얻으실 것이  
틀림없다.

나는 내가 그 창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눈까풀이 피로해 다시 감기기 시작함에 따라 몸이 뻣뻣해졌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때까지도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기지개를 켜다. 나중에 가서야 나는 그 “표적”이 성령이 내 마음을 화평으로 채우고 나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멀리 있는 가족의 사랑과 매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형태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내가 창문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는 선교사 임무를 절반 정도 밖에 봉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나는 쟁기에 손을 대고 돌아서거나 구세주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에 관한 성구가 생각났다. 나는 우리 부친께서는 내가 머물러서 내가 행하게 되어 있는 일을 끝내기를 원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머니를 돕기 위하여 집으로 가겠다고 결정했다.

나는 다음날 모든 것을 마음 속에만 간직하고 그것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사실상 아직도 그 일은 사실같지가 않았다. 그것은 몽롱한 꿈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가족에게 전화할 계획을 세웠다.

아침에 바쁘게 일하고 얼른 점심을 먹은 다음 우리는 전화할 수 있는 우체국까지 페달을 밟고 갔다. 나는 장거리 전화 앞에 줄을 서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내 순서가 왔을 때 접수하는 사람에게

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 건물 중앙에 있는 해당 전화 박스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전화가 연결되자 이렇게 말했다. “누나, 내 말 들려?”

“그래, 클롬프. 네가 전화해 주어서 기쁘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모여서 엄마를 잘 돌봐 드리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기 바란다. 엄마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를 바라신다.”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과 통화하고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가족이 거의 모두 모일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신 것같이 보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가 집에서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에게 위임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 독일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작고 고요한 음성이 나를 위안하셨으며 나는 나머지 선교사 기간을 나의 믿음과 나의 가족과 무엇보다도 부친에게 영예를 돌리는 방식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충실했으며 나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가르치셨다. 그가 어떤 직책을 끝내기 전에 그만 두거나 포기하신 적이 있었던가? 우리 아빠는 아니야. \*



# 개척자 어린이 종이 인형

마리안 도넬





젠은 뜨거운 다리미를 베갯잇에 놓고는 그 천이 다려질 때까지 불만스럽게 다리미를 앞뒤로 움직였다. 젠은 깨끗하지만 구겨진 옷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베갯잇을 다리미질하는 것은 지겨워. 나는 무엇이든 다리미질하는 데 싫증이 난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바깥의 무서운 바람이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젠이 다리미로 다리미판을 쿵쿵 치는 울동적인 소리로 이따금 차단될 뿐이었다. 그녀는 창 밖의 몰아치는 눈보라를 보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내가

장녀가 아니었더라면. 그러면 나는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한 시간 전만 해도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다리미질이 끝나거든 내 방으로 오너라. 저녁 식사로 뭘 준비할지 정하자.”

젠은 저녁 식사와 더러운 접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만 해도 불평이 나왔다. 왜 내가 해야 하지? 이전 불공평해! 손으로 베갯잇을 다듬고 곱게 접어서 점점 많아지는 다려진 빨래 꾸러미에 얹으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으며 긴 갈색의

머리카락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스쳤다. 그녀는 어머니가 침대에서 쉬는 모습과 다른 네 아이가 집안의 다른 곳에 조용히 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모든 사람이 폭풍이 끝날 때까지 그저 조용히 시간만 보내기라도 하는 듯이 그 폭풍은 모든 사람에게 침묵을 뒤집어 씌운 것 같았다.

나중에 젠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마지막 남은 다리미질할 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손수건이었다. 젠은 다리미질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께서 유산하지

데안 패커 캘리



## 바람 속의 음악





않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계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나는 어머니가 명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아빠가 어머니를 보실 때는 아빠도 염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라고 자신을 위로했다.

젠은 밖을 보면서 폭풍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바람은 더 크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집을 강타해서 그녀의 우울한 기분을 더욱 우울하게 했다. 갑자기 세탁하는 방의 불이 깜박거리더니 전기가 나갔다. 아직 초저녁이기 때문에 폭풍에도 불구하고 눈이 창문을 통하여 충분한 빛을 반사했다.

젠은 가냘프고 음악적인 소리가 나는 것을 알았다.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라디오 소리는 아니야. 그녀는 복도로 나가서 귀를 기울였다.

젠은 여전히 들으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속삭였다. 젠은 그 플루우트같은 소리를 따라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이방 저방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누가 플루우트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가족 중에서는 아무도 플루우트를 부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마력적인 소리는 평화롭고 유연했다. 그 소리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고 약해졌다가 다시 커지곤 했다.

젠은 아직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방문 앞에 오게 되었다. 그녀는 어떻게 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다. 그녀는 그 맑고 부드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용히 들어갔다. 창문 밖에서 소용돌이치고 바람이 휘날리는 흰 눈이 반사해서 그녀의 방의 분홍색과 흰색을 밝게 해 주었다. 이제는 크게 들리는 그 소리를 따라 갔다. 그 특별한 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흰색의 거품같은 커어튼을 움직였다.

젠은 “야, 이것 봐라!”라고 소리쳤다. 그녀가 들은 소리는 단순히 그 휘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천연적으로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바람이 그녀의 창문에 너무나 강하게 들이쳐서 갈라진 틈으로 밀려드는 바람이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젠은 창문과 밖에 휘날리는 눈을 보면서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다가 환상에서 깨어나 몸을 돌려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젠은 어머니가 깨어 계신 것을 보고 기뻐서 신이 나서 자기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렸다.

어머니의 검은 눈에 빛이 나고 피로한 입에 큰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손을 올려 젠에게 붙잡아 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흥분한 음성으로 “나에게 보여 주렴!”이라고 말씀하셨다.

젠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젠의 방으로 가서 두 사람은 젠의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들리는 소리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그 음악 소리 뿐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속삭였다. “그것 참 아름답구나!”

젠은 몇분 동안 조용히 들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나 혼자서 이 눈보라 속에 있다면 정말로 무서울거예요.”

어머니도 동의하셨다. “그래, 나도 그럴꺼야. 그러나 이 거칠은 폭풍우가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이한







음악을 들려 준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냐?”

“예”라고 말하면서 젠은 두려움을 잊고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얹었다. 그녀의 생각은 그날 이른 오후로 되돌아갔다.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 평화와 안정의 느낌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솟아 올랐다.

어머니의 음성이 침묵을 깨뜨렸다. “젠! 전기도 나갔는데 저녁을 어떻게 하지?”

젠은 킁킁거렸다. “어제 저녁에 먹던 스튜우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스튜우를 팬에 넣어서 케치카 위에 올려 놓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개척자들이 했던 것처럼 불 옆에 모여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도 “개척자들처럼!”이라고 맞장구쳐 주었다.

젠은 바람 속에서 나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화평스럽고 만족스러웠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자기 생활이 개척자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미소를 띄고 저녁을 준비하러 갔다.\*



# 여덟 살짜리

**한** 유다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겨우 여덟 살밖에 되지 않는 요시아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악정을 하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바른 정치를 하며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길 원했습니다. 유다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이 일들이 잘못된 줄은 알았지만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요시아는 통치한 지 이십 육 년 후에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려 했습니다. 그 성전의 형태는 그대로 있었지만 많이 퇴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전에 가지고 온 은전을 모두 받아 내어, 주님의 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목수와 석공과 미장에게 주”라고 요시아는 명하였습니다.

주님의 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한창 진행하는 도중에 대제사 힐기야는 법전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읽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 왕, 요시아야



그 놀라운 책을 요시아에게 가져 왔습니다.

요시아는 생전 처음으로 성서에 적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혹되었습니다. 성서를 통해 그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지만, 한 가지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서에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으나 그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악을 행해 왔으므로 요시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시아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주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아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여선지자인 홀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녀는 찾아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백성들이 악을 행했으나 그의 겸손과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홀다의 말을 전해 들은 요시아는 성전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전에서 발견된 성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주님 앞에 성약을 맺었습니다. 요시아는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며 우상과 그들이 섬기던 잡소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요시아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참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라를 다 깨끗하게 한 후에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유월절 잔치를 베풀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유대 지방에서 열리던 대단한 축제였습니다.

요시아는 단지 여덟 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유대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22~23장에 나와 있습니다.)





# 엘렌 푸셀 언생크

샤론 비겔로우

열 살된 엘렌 푸셀은 한 발짝도 더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수없는 난 동안 끝없이 먼 길을 눈 쌓이고 얼어붙은 땅 위로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왔던 것이다. 이제 무자비한 추위가 그녀의 남루한 옷을 뚫고 찌르는 듯한 괴로움을 주었고 다리의 통증이 거의 견딜 수 없이 되어 엘렌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늘 부르듯이 벨리는 멀면서 자리에 앉아 있을 뿐 갈 수가 없었다. 그녀의 언니인 매기가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달랬다. 그러나 그녀의 지친 친구들이 앞에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손수레를 힘겹게 눈속으로 끌고 가는데도 벨리는 여전히 앉아 있었으며 뻣뻣해진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매기는 다시 개척대 무리가 그들을 버려두고 가기 전에 같이 걸어가자고 어린 동생에게 애원했다. 개척대를 따라 가려는 희망이

사라지려는 무렵에 마차 한 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운 좋게 마차를 가질 수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 마차를 모는 분이 멈춰서 그 어린 소녀들에 대하여 물었다. 매기가 상황을 설명하자 벨리를 마차의 뒤에 태워주었다. 그들이 대원을 급히 쫓아가는 동안 그녀의 다리가 마차의 끄트머리에서 덜렁거렸다.

벨리의 가족은 1856년 5월에 많은 말일성도 무리들과 함께 영국의 리버풀로부터 출발하였다. 호이즌이라는 배를 타고 안전하게 항해한 다음 그들은 보스턴에 내려서 기차로 아이오와까지 여행하였다. 그곳으로부터 벨리는 부모와 언니 매기와 오백 명 이상의 다른 개척자들과 함께 출발하였다. 그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있는 평화와 새로운 가정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마차나 그 마차를 끌 동물을 사기에는





폴 맨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손수레라고 하는 작고 바퀴가 두 개 달린 마차를 선택하였는데 그것을 그들이 끌고 가야 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실을 수 있었다. 여분의 침구, 의류, 가정물품, 심지어는 여분의 식량까지도 뒤에 남겨 두어야 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 손수레 부대는 좋은 날씨를 즐겼으나 시월이 되자 초겨울의 눈보라와 혹독한 추위가 개척자들의 행군을 느리게 만들었다.

넬리의 가족은 다른 대원들과 함께 고난을 겪었다. 어머니는 병들었으며 그들은 어머니를 손수레에 태우고 가야 했다. 넬리의 아버지는 강물을 건너다가 강물에 미끄러져 빠졌다. 당시에는 마른 옷이나 따뜻한 보금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혹독한 추위를 겪어야 했다. 가족의 식품이 점점 부족해졌으며 그들이 모아서 불을 지필 만한 연료가 될 만한 것은

모두 눈이 덮어버렸다.

넬리의 아버지는 배고픔과 추위로 인하여 1856년 10월 22일에 세상을 떠나셨다. 5일 후에는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다. 겨울이 일찍 닥쳐서 땅이 얼어버렸기 때문에 무덤이라고는 눈을 파서 만들 수 있을 따름이었다. 넬리와 매기는 지치고 슬픔에 잠겨 그저 따라 걸었다. 그들은 더 많은 대원이 죽어가고 추운 날씨가 점점 더 혹심해지는 것을 목격했다.

어느날 넬리와 언니가 대열에서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처음에는 그 소녀들이 거절했으나 곧 그들에게 악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사람들은 넬리에게 돈을 좀 주고 그녀에게 그들이 가고 있는 곳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의 교역소에서 그녀의 발을 감쌀 것을 좀 사라고 했다. 넬리는 감사히 그 돈과 자신의 맨발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받아 들었다. 그 발은 추위로 감각을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브리감 영 대관장이 대평원에서 그 손수레 부대를 영접할 지원자를 소집했다. 그 지원자들이 마침내 와이오밍주 라라미 근처에서 그 손수레 대원들에게 접근했을 때 그들은 불쌍한 무리들이 거의 눈속에 뒤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넬리의 발은 심하게 얼어 있었다. 구조대는 그녀와 그 나머지 대원들을 그들의 마차에 모아서 솔트레이크로 데려 갔으며 11월 30일에 도착하였다.

그 손수레 대열에 참여했던 사람은 거의 모두가 손과 발과 귀가 얼었으며 자기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목격했다. 의사는 넬리의 두 발을 잘라내야 했다. 절단된 부분의 뼈를 원충시켜 줄 피부가 남은 것이 없어서 그녀는 쭈시는 통증을 안고

살았으며 그것은 결코 고쳐지지 않았다.

넬리와 언니는 결국에는 솔트레이크 계곡으로부터 남쪽의 시다시티로 이사갔다. 이곳에서 넬리는 윌리엄 언생크와 결혼하여 여섯 자녀를 키웠다. 넬리는 잘라낸 다리 밑으로 가족 에이프론을 대서 무릎으로 그들의 작은 집 주위를 다님으로써 그 집에 흠집이 생기지 않게 했다.

넬리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했다. 그녀가 한 일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옷을 받아서 세탁하고 가게의 수입을 보태기 위하여 물건을 만드는 일도 했다. 누구든 식량이나 도움을 주면 그녀는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써 일 년에 한 번씩 자녀를 교회의 집회소로 모두 데리고 가서 청소를 했다. 아들들이 물을 운반하면 딸들이 창을 닦고 넬리는 바닥을 닦았다.

윌리엄이 넬리를 위하여 나무로 “의족”을 만들어 주었으나 그것은 결코 고쳐지지 않는 절단 부분을 자극할 따름이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헌금하여 넬리에게 목제 다리를 기증했으나 이것은 끊임없는 고통만 더해 줄 뿐이었으므로 그녀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그것을 사용했다.

넬리는 가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녀의 맨발을 감싸도록 신발을 받은 것과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마차가 온 것이라든지 고난의 일생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도움을 통하여 푸셀 언생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